

KOSTA World, 9월 18-20일 엘바인 온누리교회서 개최

디아스포라 청년들의 ‘소명’을 묻다
2025 코스타 월드 어바인, 강준민 목사, 하준파파
박위 & 송지은, 아이자야 씹스티원 등 참여

한인 디아스포라 청년들을 위한 컨퍼런스 ‘코스타 월드’(KOSTA World)가 오는 9월 18일(목)부터 20일(토)까지 사흘간 엘바인 온누리교회에서 열리고 있다.

이번 집회는 “Calling: 내가 선 곳, 거룩한 땅”(출 3:5)라는 주제로, 디아스포라 한인 청년들이 자신이 선 자리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새롭게 발견하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저녁 집회는 모든 이들에게 열려 있는 오픈 집회로 진행되며, 마지막 날인 20일(토) 오전과 오후에는 대학, 청년을 위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등록자에 한해 참여할 수 있다.

9월 18일(목) 저녁집회(7:00-10:00)는 황태환 대표, 이서진 목

사가 이끌며, 19일(금) 저녁집회(7:00-10:00)는 박위& 송지은, 강준민 목사가 이끈다.

9월 20일(토)은 일일수련회로 진행되며, 최성민 목사가 오전 집회를 인도하며, 토크쇼, 선택 특강, 연애 특강, 소그룹 등으로 구성된다. 토요일 저녁 집회(7:00-10:00)는 ‘아이자야 61’ 조성민 간사가 찬양을 인도하고 임은미 선교사가 말씀을 전한다.

이번 집회에는 강준민 목사(새생명비전교회), 임은미 선교사(케냐 선교사), 이서진 목사(온누리교회 여호수아 공동체), 최성민 목사(온누리교회 대학청년부 본부장), 황태환 대표(하준파파), 송지은 & 박



디아스포라 청년을 위한 코스타 집회가 “Calling”이라는 주제로 9월 20(토)까지 엘바인 온누리교회에서 개최된다. © kosta

위, 조성민 간사(아이자야 61) 등 다양한 사역자들이 강사로 참여한다.

엘바인 온누리교회 청년부 찬양팀, 베델교회 청년부 찬양팀, 남가주 사랑의 교회 찬양팀이 찬양집회를 섬긴다. 주최측은, “이번 코스타를 통해 청년들이 삶의 현장에서 ‘거룩한 부르심’을 붙잡는 영적 전환

점이 되기를 소망한다”고 전했다. 1980년대 미국 유학생들의 신

앙운동으로 시작된 코스타(Korean Diaspora For the Kingdom of God)는 교단, 교파, 단체의 벽을 넘어 현재 1.5세와 2세대, 이민자들과 목회자 및 선교사들이 함께 하는 연합사역으로, 현재 26개국에

서 약 2만 여명의 학생들이 참석하고 있다.

김민선 기자
주소: 17200 Jamboree Rd, Irvine CA 92614

등록: 개인 \$30 / 단체 \$20(1인)
문의: 949-735-7020

kosta@irvineonnuri.org
신청: kosta2025.kingdompla.net

美 찰리 커크 조문객들 장사진… “진리 위해 싸운 증인”

영적전쟁에서 고인의 공로 기려, 장례식은 9월 21일 애리조나

미국 보수 기독교 운동가 찰리 커크(Charlie Kirk·31)의 죽음을 애도하기 위해 수천 명의 조문객이 워싱턴 D.C. 케네디센터를 가득 메웠다.

지난 14일 밤 열린 추모 집회에는 백악관 각료와 의회 의원들, 보수 기독교 지도자와 교인들이 참석해 고인의 신앙과 삶을 기렸다.

이날 집회는 단순한 애도를 넘어 정치적·종교적 메시지가 결합된 장이었다. 참석자들은 이번 사건을 단순한 범죄가 아닌 “영적 전쟁”으로 규정했다. 한 연사는 “오늘날 미국은 선과 악의 경계가 분명해져 있다”며, 커크가 걸어온 길을 신앙의 투쟁으로 강조했다.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RFK

Jr.) 보건복지부 장관은 커크를 ‘영적 동료’이자 ‘영적 형제’라고 불렀다. 그는 “커크는 표현의 자유와 시민적 담론 옹호에 목소리를 높였다”고 전했다.

또한 커크가 자신의 “미국을 다시 건강하게”(MAHA) 운동과 트럼프 전영 사이의 다리 역할을 자처하며, 정치적 통합의 실무적 설계자로서 영향력도 미쳤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발언자는 “슬픔에만 머물 수 없다. 이제 우리는 희망과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커크가 남긴 용기와 열정을 이어받아 계속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호소했다.

한편 커크의 장례식은 오는 9월



워싱턴 D.C. 케네디 센터에서 찰리 커크의 추모식이 열렸다. © Kennedy Center

21일 애리조나 글렌데일의 스테이트팜 스타디움에서 개최된다. 오전 8시에 문을 열고 11시부터 공식 예식이 진행될 예정이다.

보수 진영의 청년운동가였던 커크는 여러 대학에서 “내가 틀렸음을 증명해봐”(Prove Me Wrong)라는 문구를 달고, 청년들과 기독교

세계관, 여성인권과 낙태, 성소수자 문제, 이민자 문제, 대학의 보수 인종 우대 정책(Affirmative Action) 등에 관해 공개 토론을 벌였으며, 지난주 유타밸리대학에서 학생들과 총기소지에 관해 토론하던 중 목부위에 총상을 입고 사망했다.

경찰은 총격범 타이러 로빈슨(Tyler Robinson·22)을 살인 혐의와 중상해 총기 발사, 사법 방해 등의 혐의로 체포했다. 그의 ‘성전환 증인 동기인’이 수사에 협조하고 있으며, 사건 전후 정황과 동기에 대해 집중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총알 케이스에서 반(反)파시스트 문구와 노래 가사가 발견되면서, 범행 배후에 이념적·좌파 단체 개입 가능성도 주목받고 있다.

강혜진 기자

당일송금 당일지급
송금·환전
한국 돈이나 달러가 필요하신 분?
입금 즉시 캐쉬 OUT / 신속 정확
소액~고액 환영 / 매월하시는 분 우대
타운내 최고로 저렴한 택배(한국택배)
\$ 미국 ↔ 한국 ₩ 7Day 24hours (213)400-6363

www.marhlaw.com
어려운 시기에 힘든 분들의 힘있는 변호사
신실한 벗이 되길 희망합니다!
■ 상법 / 부동산법 ■ 뱅크럽스 YouTube “마동환 법률상식”
마변호사그룹에서 여러 분야의 법전문제로 인한 스트레스에서 자유로워지는 평안을 체험하십시오.
마동환 변호사그룹 대면·전화상담 예약 213.820.3704
MARH & ASSOCIATES Attorneys at Law

ADU 전문 리모델링
디자인 설계 시공 실내구조 변경 집수리 일체
Kitchen & Bath 완전 리모델링
“25년 간의 달인과 지금 상담해 보세요”
K-Urban Builders 213-310-1800

2025 브릿지워십 찬양집회
Your Kingdom Come
주님의 나라 임하소서
2025.10.05 (주일) 9:30 & 11:15 AM | 에브리데이교회
17037 Devonshire St., Northridge, CA 91325 | 818.832.6628 | churcheveryday.org
예배 인도자 | 정데이빗 서우람 해리스 고 지현준 싱어 | 지주영 서예량 김아경 김지연 김윤경 정서현 이승연 송성호 성미경 자넷고 장민아 서승덕
세션 | 김주디 FIRST 건반 | 김예림 SECOND 건반 | 우조앤 ACOUSTIC 기타 | 정준희 ELECTRIC 기타 | 민경일 BASS 기타 | 정조셉 DRUM

보수 청년운동가의 죽음 앞에서 교회가 던진 질문

세미한교회 이은상 목사 ‘주를 위해 고난 받는 시대가 온다’(마 5:10-12)

지난 10일(수) 오후 12시 20분쯤 유태밸리대학교 야외 행사장에서 공개 토론을 진행 중이던 보수 청년 운동가 찰리 커크가 총상을 입고 서른한 살의 짧은 생을 마감했다.

그의 죽음은 전 세계적으로 엇갈린 반응을 불러일으켰다. 일부는 공개적으로 환영의 뜻을 나타내 논란을 빚었다. 버지니아 알렉산드리아에 위치한 엘프레드 스트리트 침례교회의 하워드-존 웨슬리 목사는 “커크는 ‘자랑스러운 인종차별주의자’였다”며 “그의 죽음을 애도할 수 없다”고 밝혔다.

몇몇 한인 목회자들은 그의 정치적 견해를 떠나, 그가 기독교 세계관과 복음주의적 가치를 주장했던 점과 그의 살해는 미국 수정 헌법 제1조인 ‘표현의 자유’를 위협받은 사건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텍사스 캐롤튼 세미한교회 이은상 목사는 지난 12일(금) ‘주를 위해 고난 받는 시대가 온다’(마 5:10-12)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이 사건을 전면에 다뤘다.

그는 커크를, “대학 캠퍼스를 다니며 용기 있게 복음을 전했고, 성경적 세계관을 전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으로 평가하며, 그의 영상들을 공유했다.

이 영상에서, 커크는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며(“부활은 제 믿음의 핵심입니다. 역사상 그 어떤 사건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기꺼이 죽음을



세미한교회 이은상 목사는 지난 12일(금) ‘주를 위해 고난 받는 시대가 온다’(마 5:10-12)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찰리 커크 총격 사건을 전면에 다뤘다.

택한 적이 있었나요? 잔혹한 죽음을요? 단지 거짓말 때문이에요?) 낙태찬성론자의 의견을 반박하고, 소수 인종 우대 정책 ‘어퍼머티브 액션’(Affirmative Action)의 허점을 지적한다.

한 예로, 영상에는 “태아를 죽이는 것은 살인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한 여성이 등장한다. 커크는, “그렇다면, 태아는 무슨 종(species)인가?”, “인간”, “그럼 왜 살인이 아니지?”, “아직 태어나지 않았으니까”, “그게 왜 인간이 아니라는 건가?” 그러자 여성은, “태아는 아직 여성의 몸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답한다. 커크는 이에 다음과 같이 받아친다. “심장박동기를 달면 의존적인 것이고, 신생아 집중치료를 아기들은 모두 다 의존적이다. 의존한다고 해서 그 존재의 도덕적 가치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왜 태아 사위가 아니라, 베이비 샤워라고 하는가?

이어서 이은상 목사는, “성경적 가치관은 하나님께서 잉태되게 하시는 순간부터 생명인 줄 믿는다. 한 여학생이 태아를 기생충에 비유한다. 그러자 그가 ‘베이비 샤워야 아니면 태아(fetus) 샤워냐’라고 했을 때, 이 여성은 대답할 말을 찾지 못한다. 아이가 뱃속에 있지만 베이비 샤워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 아이를 존중하며 생명으로 봐야 한다. 그런 것들을 외쳤던 삶이다.”

그는 정치적 성향, 생각, 종교적 가치관의 차이로 인해 교회, 교단, 같은 크리스천 안에서도, 한 가족 안에서도 이러한 분열과 증오가 발생한다며, 정치적 이념으로 편을 가르고, 어떤 조직과 기관에 깊이 연루되어 있다면, ‘그리스도와 하나되라’는 성경의 가르침으로부터 벗어나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와 하나되라 하셨지, 어느 정치인의 이념으로 하나되라고 하지 않았다. 여러분의 정체성이 정치 이념과 조직과 기관과 그룹에 연결되어 있지 않은가? 우리가 어느새 그 정치인들과 그런 마음을 통하고 있다. 저와 여러분은 무엇과 하나되어 있으며, 무엇에 분개하는가? 무엇에 마음이 들끓는가? 무엇에 마음이 동요되는가? 정말 그리스도 때문에 동요되는가? 1세기의 크리스천들은 그것 때문에 쇠사슬이 묶였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렸고 사자 우리의 밥이 됐고 검투사들의 놀이감이 됐다.”

그는 찰리 커크의 영상에서, 서로 정치적 성향이 다른 아들과 아버지 그와 대화를 나누는 장면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사랑한다는 건 내 성향과 내 생각과 내 인연과 내 가치관이 맞아야만 사랑할 수 있다라는 말이

아니다. 나와 완전히 다른 생각을 하고 있어도, 그 사람을 그 자체로 존중하며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육신이 필요하다. 성육신은 유언하다는 것이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셨다. 모든 걸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오신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 예수님의 사랑을 배워서 사랑하기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 사건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이 담긴 영상을 공유했다. ‘어차피 벌어질 일이었어요.’, ‘검으로 살고 검으로 죽었어요.’, ‘그가 스스로 주장하던 것이라 생각해요.’, ‘그의 죽음은 좋은 일이었어요.’ 등의 그들의 답변을 보여주며, 그는, “우리 자녀들은, 청소년들, 유년부와 영아부 아이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라며 “3,500개 이민 교회를 밝히기 위해, 이 나라를 위해, 이 시대를 위해” 기도를 요청했다.

ANC온누리교회 김태형 목사는, 14일 주일 3부예배 때, 그의 죽음을 언급하며 기도했다.

“찰리 커크라는 크리스천 보수 운동가가 암살됐다.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미국의 아주 중요한 원칙은 표현의 자유이다. 폭력 없이 우리가 서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게 미국이다. 서로의 의견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함께 고민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디 한기자

라운드락장로교회, 헌당예배 드리며 새로운 도약

1995년 12월 8일, 어른 4명과 아이 5명으로 출발한 라운드락장로교회가 2025년 2월 26일 헌당예배를 드리며 힘차게 나아가고 있다.

교회는 1999년 9월 5.5에이커의 부지를 구입해 첫 성전을 건축한 이후 꾸준히 성장해오다, 2024년 7월부터 8개월 동안 100여 만 달러 예산의 공사를 통해 성전을 증축 및 신축했다. 모든 건축비를 완납하고 드린 이번 헌당예배는 교회 설립

30주년을 앞두고 선교 비전을 재확인하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

김광석 목사는 세계예수교장로회(WPC) 제42대 총회장을 역임했으며, 그의 부친 고(故) 김일국 목사는 캘리포니아 엘시노와 텍사스 킬린에서 혈문산 기도원을 운영했으며 한국에서 연합장로교회 총회장을 역임했다.

김 목사의 모친 허봉량 선교사는 88세의 나이에도 왕성하게 사역하



고 있다. 65년간 1만 5천여 교회의 부흥회를 인도했으며, 유튜브를 통

해서도 수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 이러한 영적인 유산을 이어받은 김광석 목사의 영향으로 교회 역시 설립 당시부터 “선교하는 교회”를 목표로 삼고 있다.

현재 라운드락장로교회는 22개국의 선교사들

을 후원하며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 이번 헌당예배는 단순한 건물 완공의 의미를 넘어, 더 넓은 선교의 비전을 품고 지역과 열방을 섬기는 교회로 나아가는 출발점이 되었다.

김광석 목사는 “앞으로도 복음과 선교를 위한 교회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선 기자

교회 주소: 2011 Cade Lk, Round Rock, TX 78664

홈페이지: www.rrkpc.net
E-MAIL: rrkpc@hotmail.com

아버지 밥상교회(홀리스미션)

홀리스 영혼들을 예수님의 품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많은 협력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무디 고 목사 T.(213)364-7289
2551 W. Olympic Blvd., LA, CA 90006
9030 Duncan Rd., Victorville CA 92392

기독교일보

Pay to the Order of Christianity Daily

편집교문 : 박기호, 김종언, 고승희, 민종기, 정우성
발행인 : 이인규 고문변호사 : 정찬웅
지사 : 로스앤젤레스, 뉴욕, 애틀랜타, 시애틀, 텍사스
대표전화 : T.(213) 739 - 0403 / E-mail : chdailya@gmail.com
주소 : 3055 Wilshire Blvd, #480, Los Angeles, CA 90010

태양광, 솔라!!

주택용 30% Tax Credit / 상업용 최대 80% Tax Benefit

전기세 50~90% 절감

무료 설치 서비스
전기차에 필수인 240V 아울렛을 무료 설치해 드립니다.

백업용 배터리 합니다.
정전에도 끄떡없고 절약을 위한 옵션, 고객님들께 **원가에 제공**
SCE 지역 필수 / LADWP 선택 옵션

초기부담 없는 \$0 다운부터
풀 페이먼트 / 할부 결제 / PPA

주택, 커머셜, 교회 등 솔라 설치 가능

Why BTS Solar?
www.btssolardesign.com

SCAN ME

상업용 건물, Tax Benefit

60% ~ 80%

텍스 크레딧: 최대 30%
감가상각: 최대 80% 적용
(2025년 설치 시)

- 원금 회수기간: 3년 ~ 6년
- 전기료 절감: 최대 90%

213.500.8000

2621 W. Olympic Blvd. #206
Los Angeles, CA 90006

714.702.0151

6904 Oran Cir. Buena Park, CA 90621



당신을
진료실에
온기를
채우는
모십니다

PRIMARY CARE PHYSICIAN 모집

업계 최고 수준의 연봉과 대우 보장

근무 지역 LA / ORANGE COUNTY

CONTACT ☎ (760) 927-0927
✉ TONY@POPMSO.COM
🌐 WWW.CENTERIPA.COM

인터뷰 희망 시 연락 바랍니다



중국의 탈북민 강제복송, 사실상 ‘사형 선고’

강제복송진상규명국민운동본부, 에스더기도운동 등 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는 ‘탈북민 강제복송 반대 범국민연합’(이하 국민연합)이 15일 오후 서울 명동 중국대사관 인근 서울중앙우체국 앞에서 ‘중국 정부 탈북난민 강제복송 반대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국민연합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중국 정부는 탈북민을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고, 경제적 이유로 불법 입국한 ‘불법 월경자’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입장은 1986년 북한과 체결한 ‘변경지역 국가 안전 및 사회질서 유지’를 위한 의정서’에 근거한 것이라고 주장한다”며 “이러한 법적 규정으로 인해 중국 내 탈북민들은 ‘3불(불법입국, 불법체류, 불법취업)’ 문제에 해당해 언제든지 중국 공안에 체포되어 처벌받을 수 있는 불안정한 신분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했다.

이어 “적발된 탈북민은 구금된 후 강제 복송되는 사례가 빈번하여 이 과정에서 심각한 인권침해를 당한다”며 “특히 탈북여성들은 더욱 취약한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중국 남성과의 강제 결혼이나 인신매매를 당하는 경우가 많으며, 매매혼으로 인해 불법 체류자 신분



중국 정부 탈북난민 강제복송 반대 기자회견이 15일 진행되고 있다. © 국민연합

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 또한 자녀의 호구 등록 문제로도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들은 심각한 심리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중국은 또한 탈북민을 지원하는 자국민에게도 형벌을 부과하는 조항을 가지고 있다”며 “탈북민의 탈북 행위나 중국 내 체류를 돕는 중국인과 조직이 위법 행위를 명시하여 자국민도 처벌을 한다. 이러한 조치는 탈북민들이 의지할 수 있는 은신처와 지원망을 위축시켜 이들의 취약성을 더욱 심화시킨다”고 했다.

국민연합은 “중국이 북한이탈주

민을 ‘불법 월경자’로 분류하는 것은 탈북민에게 법적 보호를 박탈하고, 그들을 극단적인 취약 상태에 놓이게 하는 의도적인 정책”이라며 “법적 지위의 부재는 이들이 인신매매, 강제 결혼, 노동 착취 등 다양한 형태의 인권 유린에 노출되도록 만들며, 피해를 당해도 법적 구제를 요청할 수 없게 되어 중국 내에서 발생하는 인권 침해의 근본적인 원인이 된다”고 했다.

또한 “중국에서 강제 복송된 탈북민들은 북한 내 구금시설에서 상상하기 어려운 가혹한 처벌과 인권 유린에 직면한다”며 “복송된

이들은 고문, 폭행, 굶주림, 성폭행, 강제노동 등으로 극심한 육체적, 정신적인 고통을 당한다. 특히 중국인 남편의 자녀를 임신한 여성의 경우, 구금시설에서 마취도 없이 강제 낙태를 당하는 사례도 보고되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또한 복송된 탈북민들이 한국행을 시도한 것으로 의심될 경우 ‘반역자’로 간주되어 더욱 가혹한 처벌을 받는다. 북한은 탈북 행위를 ‘조국과 인민을 배반하는 가장 큰 죄악’이자 ‘반국가범죄’로 규정하고 엄중히 처벌한다”며 “김정일의 교시판에는 ‘도주한 놈을

무조건 잡아 죽여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 탈북민에 대한 극단적인 처벌이 체제 유지의 핵심 수단임을 보여준다”고 했다.

국민연합은 “북한 내 구금시설에서 자행되는 체계적이고 극단적인 인권 유린의 실상을 고려할 때, 중국의 강제복송 행위는 단순한 송환을 넘어 사실상 ‘사형 선고’ 또는 상상하기 어려운 고통의 삶으로의 추방과 다름없다”며 “이러한 중국의 정책은 북한 정권이 공포를 통해 주민들을 통제하고 체제를 유지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며, 결과적으로 중국이 반인도적 범죄에 공모하고 있음을 명백히 보여준다”고 했다.

이에 이들은 중국 정부를 향해 △유엔 난민협약과 고문방지협약에 따라 ‘강제송환금지 원칙’을 준수하라 △강제 구금된 2000여명의 탈북민을 모두 석방하라 △중국 내 탈북민의 인권을 존중하고 UN 난민 지위를 보장하라 △탈북민이 제3국으로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허용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인권개선 사항들을 중국 정부가 수용하지 않는다면 중국은 유엔 안보리상임이사국과 인권이사국의 지위에서 사퇴하라”고 했다. **김진영 기자**

시리아 종교 소수자 학살 지속… 미국에 적극 대응 촉구

시리아 내 기독교인, 알라위파, 드루즈 등 종교 소수자들이 급진적 지하디스트와 극단주의 세력의 잔혹한 공격과 인권 침해에 시달리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종교 자유 옹호자들은 미국 정부가 적극적인 대응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고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가 보도했다.

알라위파미국협회(AAUS) 회장 모르하프 이브라힘 박사는 최근 워싱턴 D.C. 연방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것은 단순한 폭력이 아니라 의도적인 테러 캠페인”이라며 “시리아의 종교 소수자들이 존재 자체의 위협에 직면해 있다”고 경고했다.

CP에 따르면 2024년 12월 아사드 정권이 무너지 뒤, 기독교인과 알라위파, 드루즈 공동체는 외국인 지하디스트와 아사드 충성 세력, 임시 정부를 장악한 민병대의 공격에 노출돼 있다. 특히 알카에다와 이슬



크리스마스 트리 화재 사건 후 시위하는 시리아 기독교인들.(기사와 관련 없음) © citynews 보도영상 캡처

람국가(IS) 출신으로 구성된 연합체 하야트 타흐리르 알삼(HTS)이 권력을 잡으면서 종교 소수자들의 안전은 더욱 위협받고 있다.

이브라힘 회장은 올해 3월 지중해 연안 알라위파 마을에서 벌어진 집단학살을 언급하며 “1,500명에 달하는 주민이 잔혹하게 살해됐다.

심지어 희생자의 심장을 꺼내 아버지 앞에 놓는 만행까지 저질렀다”고 비판했다. 그는 여성과 소녀들이 납치돼 성노예로 팔리거나 강제 결혼을 당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고 덧붙였다.

6월 22일에는 다마스쿠스의 마르엘리야스 교회에서 폭탄 테러가 발

생해 20여 명이 사망했다. 폭탄 조끼를 착용한 범인은 주일예배 중 총격을 가한 뒤 자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디펜스 오브 크리스천스’(IDC) 리처드 가잘 사무총장은 기자회견에서 “매번 자살 폭탄, 교회 파괴, 공동체 탈출이 이어지면서 시리아는 2,000년 역사의 신앙과 문화 유산을 잃어가고 있다”며 “이는 단순한 테러가 아니라 가속화된 종교·문화적 말살”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기독교인과 알라위파, 드루즈가 시리아 사회에서 온건한 균형자 역할을 해왔으며 “이들의 소멸은 급진주의 확산과 중동 평화의 근본적 위협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시리아 기독교 공동체의 소멸은 동서 문명을 잇는 중요한 다리의 붕괴”라고 지적했다.

내전 발발 이전 시리아 기독교인은 약 200만 명(전체 인구의 10%)이었으나, 현재는 30만 명 이하로 급감한 상황이다.

이브라힘 회장과 가잘 사무총장은 미국 의회와 트럼프 행정부가 소수자 보호를 위해 적극 개입할 것을 요청했다. 이브라힘은 “알라위파, 기독교인, 드루즈, 쿠르드 등 모든 소수자를 지키는 것이 단순한 도덕적 명령이 아니라 중동의 지속적 평화 기반”이라며 분권형 통치가 안정적 대안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가잘 사무총장은 소수자들의 예배·공적 생활 참여 보장, 헌법적 권리 보호, 군 개혁을 통한 민병대와 외국인 전투원 축출 등을 개혁 과제로 제시하며 “미국은 외교 정상화의 조건으로 반드시 소수자 보호와 종교 자유 보장을 요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세계 지도자들이 단순한 규탄을 넘어 적극적 전략을 채택해야 한다”며 “시리아의 종교 다양성을 지키는 일은 인류 문명 전체의 유산을 보존하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미경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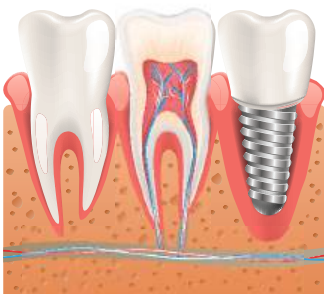
이제는 안심하자!

치아 고민·걱정 끝!

소중한 내 치아를 위한 바른 선택을 원하신다면 올림픽치과로 오세요.
임플란트, 신경치료, 크라운, 보철, 틀니 등 모든 일반치과의 진료를 최신장비를 갖추고 친절하고 꼼꼼하게 진료하는 에스더 이원장님께 안심하고 치료받으세요.
3D 디지털 임플란트 도입해 운영, 첨단 장비와 기술력으로 빠르게 치료와 회복

임플란트 치과 체크 사항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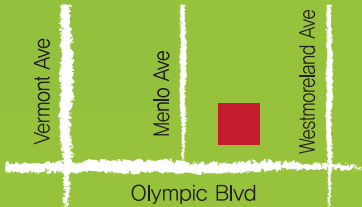
- ✓ 원장님이 초진부터 수술, 사후관리까지 진료하는가?
- ✓ 임플란트 재료는 검증 받은 제품인가, 보증서가 있는가?
- ✓ 정확한 진단을 위해, 첨단장비를 보유하고 있는가?
- ✓ 경험이 풍부하고, 수준 높은 다양한 수술 사례가 있는가?
- ✓ 엄격한 소독과 위생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에스더 이 원장

올림픽 치과
OLYMPIC DENTAL CENTER

213.385.4011
2655 W. Olympic Blvd., #206., LA, CA 90006
(Olympic + Menlo Ave. 뉴 서울 호텔 건너편)



서울메디칼그룹과 한미메디컬그룹이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두 메디칼그룹의 마음을 모아,
5,500여명의 주치의와 전문의가
이제 한 마음으로 여러분 곁을 지킵니다.
더 넓어진 진료와 다양해진 혜택으로
한인 커뮤니티를 더 따뜻하게 돌보겠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족처럼
당신을 먼저 생각합니다



스마트폰 카메라로 큐알코드를 찍고 SMG 카카오톡채널에 방문하세요!

김진홍 목사 “손현보 구속, 유신·신군부 시절에도 없던 폭거”

기독교 지도자들 겨냥한 수사 심각성 비판… “정권의 자충수”

두레수도원 원장인 김진홍 목사가 최근 손현보 목사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것에 대해 “지난 세월에 악명 높았던 유신 독재 시절이나 신군부의 폭압 정치 하에서도 이 정도의 폭거는 없었다”고 비판했다.

김 목사는 이 사안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최근 본지와와의 유튜브 라이브 대담을 통해, 그리고 15일 두레마을 회원들에게 보내는 아침 묵상 글을 통해 재차 밝혔다.

그는 “내가 볼 때는 손현보 목사가 그렇게 과격한 사람도 아니고 시국에 대하여 정부에 대하여 시위를 하고 반대를 하되 온건하게 대처한 분”이라며 “그런 그를 〈도주 우려〉란 이유로 구속시킨 점에 대하여 실소(失笑)를 금할 수 없었다”고 했다.

그는 “〈보수우파는 분열로 망하고 진보좌파는 자충수(自充手)로 망한다〉, 나는 이 말이 지금 우리 사회에 그대로 맞아 들어가고 있음을 느낀다”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통과된 것은 국민의힘 당 안에서 10여 명의 역적이 있었기에 이루어진 일이다. 글자 그대로 우파가 분열로 망한 경우다. 그 덕에



▲최근 유튜브 라이브 대담을 갖고 손현보 목사 구속과 현 시국에 대한 견해를 밝힌 김진홍 목사.

좌파가 정권을 잡게 되었는데 좌파 정권인 이재명 쪽이 이미 자충수를 두기 시작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별일도 아닌 일로 손현보 목사를 구속시킨 일 이야 어떻게든 기독교계의 원로 목사인 김장환 목사를 들볶는 일이나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인 순복음교회 당회장의 사무실을 수색하고 핸드폰을 압수한 일 등이 제정신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겠기에 이미 자충수를 두기 시작하는 것

이라 여긴다”며 “앞으로 얼마나 더 자충수 두기를 계속하여 어떻게 무너질 것인가 궁금하다”고 했다. 다음은 김 목사의 15일 아침묵상 글 전문, 그리고 본지와 김진홍 목사의 유튜브 라이브 대담 영상.

우파는 분열로 망하고 좌파는 자충수로 망한다

지난 12일, 금요일 오후에 두레마을에서 주간지인 크리스천투데이의 류재광 대표와 대담을 가졌습니다. 대담의 주제는 요즘의

어수선했던 시국을 주제로 삼고 한 시간 쯤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특히 부산 세계로교회의 손현보 목사가 구속된 사건이 당연히 중심으로 올랐습니다. 내가 볼 때는 손현보 목사가 그렇게 과격한 사람도 아니고 시국에 대하여 정부에 대하여 시위를 하고 반대를 하되 온건하게 대처한 분입니다.

그런 그를 이번엔 구속하면서 구속 사유를 〈도주 우려〉란 이유로 구속시킨 점에 대하여 실소(失笑)를 금할 수 없었습니다. 작금에 손현보 목사를 구속한 외에도 극동방송 사장인 김장환 목사 사무실을 수색하고 조사에 출두하라고 거듭 강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순복음교회의 이영훈 목사의 경우에는 교회 사무실을 수색하고 이영훈 목사의 핸드폰을 압수하여 간 처사에 대하여 나는 심각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지난 세월에 악명 높았던 유신 독재 시절이나 신군부의 폭압 정치 하에서도 이 정도의 폭거는 없었습니다.

이런 현실에 대하여 나는 이해가 되지 않아 고개를 가우뚱하며 도대체 무슨 이유로 이렇게까지

악수를 들까 하는 의심을 품게 됩니다. 정치학에서 사용하는 격언 같은 말이 있습니다.

〈보수우파는 분열로 망하고 진보좌파는 자충수(自充手)로 망한다〉

나는 이 말이 지금 우리 사회에 그대로 맞아 들어가고 있음을 느낍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통과된 것은 국민의힘 당 안에서 10여 명의 역적이 있었기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글자 그대로 우파가 분열로 망한 경우입니다. 그 덕에 좌파가 정권을 잡게 되었는데 좌파 정권인 이재명 쪽이 이미 자충수를 두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별일도 아닌 일로 손현보 목사를 구속시킨 일 이야 어떻게든 기독교계의 원로 목사인 김장환 목사를 들볶는 일이나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인 순복음교회 당회장의 사무실을 수색하고 핸드폰을 압수한 일 등이 제정신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겠기에 이미 자충수를 두기 시작하는 것이라 여겨집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자충수 두기를 계속하여 어떻게 무너질 것인가 궁금하여집니다.

송경호 기자

AI로 되살아난 아펜젤러 선교사 “제가 처음 조선에 왔을 때…”

기독교대한감리회(김정석 감독회장) 도서출판kmc가 16일 오후 CTS 아트홀에서 개신교 140주년 기념 청년비전 토크콘서트 ‘고잉업(Going Up): AI아펜젤러와 함께 감리교회의 내일을 말하다’를 개최했다. 주최 측은 특히 AI 기술로 아펜젤러 선교사를 복원해 패널들과 토크하는 시간을 마련해 눈길을 끌었다. 행사는 오프닝, ‘복음과 함께 성장한 한국교회’ 주제강의, 패널 토크, AI 아펜젤러와의 만남, AI 아펜젤러와 김정석 감독회장 대담, 마무리 토크 및 클로징 순으로 진행됐다.

서명석 교수(협성대학교)가 ‘복음과 함께 성장한 한국교회’라는 주제로 강연했다. 서 교수는 “제가 오늘 전하고 싶은 이야기는 한국에 복음이 들어오던 초창기 여정이다. 1883년 보빙사절단이 미국을 방문했을 때, 열차 안에서 가우처 박사를 만났던 사건은 겉으로 보기에는 단순한 우연 같아도 사실은 하나님의 준비된 연결이었다. 그 만남을

통해 가우처의 지원과 요청이 맥클레이로 이어졌고, 결국 고종에게 의료와 교육 활동을 허용받는 길이 열렸다. 이어서 갑신정변과 민영익 부상 사건이 터졌을 때 알렌이 서양 의술로 그를 치료하면서 신뢰를 얻게 되었고, 제중원 설립으로 복음이 사회 안으로 들어오는 창구가 마련되었다”고 했다.

그는 “1885년 제물포에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함께 상륙했을 때, 사람들은 누가 먼저냐를 따지지만 사실 중요한 것은 ‘같이 왔다’는 점이다. 아펜젤러는 영어 교실로 시작해 배재학당을 세우고, 전도와 출판, 교회 개척, 민족의식 고취까지 여러 방면에서 사역했다. 비록 짧은 생애를 마감했지만, 그가 남긴 학교와 교회, 문서 사역의 발자취는 한국 근대화와 신앙 공동체에 큰 기초가 되었다”고 했다.

이어 “또 윌리엄 스크랜턴은 가난한 이들과, 전염병 환자들을 직접 찾아가 무상으로 치료했다. 단순히 복음을 말로만 전한 것이 아니라 돌



개신교 140주년 기념 청년비전 토크콘서트가 진행되고 있다.

봄과 치료를 통해 마음의 벽을 허물었고, 이것이 한국 교회가 사회적 책임을 감당하는 전통으로 이어지게 했다. 그리고 메리 스크랜턴은 여성이 거의 존재조차 인정받지 못하던 시대에 여학교를 세웠다. 처음에는 단 한 명의 학생으로 시작했지만, 여성도 하나님 앞에 존귀한 존재임을 선포하며 결국 이화로 이어지는 길을 열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모든 흐름을 돌아보면, 복음은 단지 교회 안에서 머무르지 않았다. 의료와 교육이라는 공적인 선이 복음의 문을 열었고, 초기 선교사들의 헌신과 선택이 한국 개신교의 토대를 놓았다. 이 사실을 통해 오늘 우리도 다시 한번 ‘복음은 말이 아니라 삶으로 증거되는 것’임을 깊이 깨닫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진 AI 아펜젤러와 김정석

감독회장 대담에서 AI 기술로 구현된 아펜젤러 선교사는 “제가 처음 조선에 왔을 때 사람들은 저와 동료 선교사들을 ‘서양 도깨비’라고 부르며 두려워했다. 길에서 돌을 맞을 뻔한 일도 있었고, 마음의 문이 전혀 열리지 않았다. 그러던 중 역병이 돌았는데, 그때 저는 조선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고 직접 찾아가 돌보았다. 그 과정에서 제 동료들은 가족을 잃기도 했다. 하지만 아무도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 끝까지 함께 하면서 울고 기도하며 결을 지켰다. 그렇게 하자 조금씩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다. 결국 사람의 마음은 사람으로 열리고, 사람으로 열리는 것임을 저는 확신하게 되었다”고 했다.

이어 “조선 사람들과 가까워지기 위해 저는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했다. 낯선 음식도 함께 먹었고, 외국 인답게 가마를 타는 대신 사람들과 같은 길을 걸으며 대화했다. 생활에서도 사역에서도 조금 더 다가가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최승연 기자

TV 기독교일보 신앙간증

늘 새롭게

당신의 이야기, 하나님의 은혜

매일의 삶 속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나누는 시간!
미주 기독교일보 유튜브 신앙 간증 프로그램 “늘 새롭게”가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당신의 간증이 누군가에게 희망이 됩니다.
인생의 고비에서, 기도의 응답 속에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눠주세요.
'늘 새롭게'에 나오셔서 진솔하게 신앙간증하실 분이나
주위에 추천하실분이 있으면 소개해 주세요.

신청 및 문의 : 기독교일보 213-739-0403 / chdailya@gmail.com

*미주기독교일보 유튜브에 많은 관심과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유튜브에서 'CDTV 미주 기독교일보'를 검색하세요

콩고 동부 기독교인 100명 이상 학살당해... 이슬람 반군 소행



▲콩고민주공화국.

아프리카 콩고민주공화국 동부에서 이슬람 반군의 무차별 공격으로 100명 이상의 기독교인이 목숨을 잃는 참극이 발생했다.

현지 보도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노스키부(North Kivu)주의 은토요와 포로두 마을에서 발생했다. 가해자는 이슬람계 반군 조직 연합민주군(이하 ADF)으로, 이슬람국가(IS)와 연계된 무장단체로 알려져 있다.

특히, 은토요 마을에서는 최소 70명이 한꺼번에 살해됐다. 희생자들은 도끼·칼·총기 등으로 공격당했으며, 일부는 한밤중 장례식 도중 참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마을 가옥과 차량, 오토바이 등이 불타고 파괴됐으며, 주민 상당수가 납치되는 등 피해는 더욱 확산됐다.

망구레지파에서 교회를 이끌고 있는 음볼라 사마키 목사에 따르면, 은토요

에서만 최소 70명이 학살당했으며, 범행 무기는 주로 마체테 혹은 총인 것으로 확인됐다.

사마키 목사는 “그들은 도착하자마자 집, 오토바이, 차량을 불태우고, 26명을 잔인하게 살해하고 수십 명을 납치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저에 대한 사명을 갖고 계신다”고 전했다.

망구레지파 교구 사제 아베 팔루쿠 은 잘라밍기 목사는 “폭력의 규모가 압도적이다. 우리가 다 셀 수는 없지만, 대략 70명이 총에 맞아 사망했다”며 “하나님께서 지친 우리를 구해 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이번 학살 사건은 최근 몇 주간 반복돼 온 ADF의 연쇄 공격 중 가장 참혹한 사례로 꼽히며, 국제 인권단체 오픈도어는 이를 강력히 규탄하고 콩고 정부와 국제사회가 민간인 보호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신미셸 기자

하나님의성회, 72년 만에 최대 규모 선교 계획 발표



▲하나님의성회 존 이스터 전무이사. ©하나님의성회

하나님의성회 세계선교회(The Assemblies of God World Missions, 이하 AGWM)는 2025년 총회를 통해 지난 72년 역사 가운데 가장 큰 규모의 선교 계획을 발표했다.

크리스천데일리인터내셔널(CDI)에 따르면, 이번 계획은 전 세계 미전역 및 미전도 종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전략적 동원으로, 현재 복음에 접근하지 못하는 전 세계 인구의 42%를 대상으로 한다.

AGWM의 존 이스터(John Easter) 전무이사는 “이 이니셔티브는 우리 세대가 목격할 가장 큰 영적 수확을 가져올 것”이라며 “단순한 선교 확대가 아니라, 복음 접근의 격차를 해소하고 가장 영적으로 황폐한 지역에 교회를 세우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AGWM에 따르면, 전 세계 82억 인구 중 약 42%가 복음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 중 2억 2천만 명 이상은 교회, 선교사, 신자조차 없는 2,085개의 미전도종족에 속해 있다. 유럽 내에서도 5억 명 이상이 여전히 복음을 접하지 못하고 있다.

이스터는 2023년 리더십을 맡은 이

후 이 문제 해결을 위해 하나님의 인도를 구해 왔으며, 2024년 케냐 나이로비에서 열린 선교 지도자 회의에서 “42%를 41%, 40%, 39%로 줄여나가자”는 도전적 메시지를 던졌다.

AGWM은 현재 2,569명의 선교 인력을 2033년까지 4,000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모든 AGWM 사역자는 복음 접근이 가장 어려운 지역을 중심으로 사역 방향을 재조정하며, 각국 교회와 협력해 교회 개척, 소그룹 형성, 개인 전도를 통해 미전도 인구 비율을 점진적으로 줄여나갈 방침이다.

AGWM 차세대 전략가 제이콥 제스터(Jacob Jester)는 “역사상 가장 큰 세대인 Z세대가 이 사역의 중심이 돼야 한다”며 “지역교회들이 아마존의 부족부터 아랍권 무슬림 가정, 아시아의 불교 공동체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선교사를 양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GWM 동원 및 개발 책임자인 사라 점프(Sarah Jump)는 “이번 총회는 불가능해 보이는 비전을 현실로 바꾸는 희망의 순간이었다”며 “우리 세대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다”고 밝혔다.

강혜진 기자

문서선교를 후원하는 교회

Christianity Daily

LA 지역

주일에배 오전 11:00
어린이에배 주일 오후 2:00
장년기초성경공부 주일 오후 2:00

영혼의 샘 내적치유 영성집회
- 월-금 오후 7:30
- 토 오후 3:00

김성식 담임목사

LA백송교회
백합화처럼 순결하고 소나무처럼 늘 푸르른 영혼으로 소생시키는 교회

6031 Linden Ave, Long Beach, CA 90805
T. (562)606-2345, (424)445-8070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내세대에배 오전 9:15)
3부예배차세대예배 오전 11:30
대학청년부/EM 오후 2:00

수요종부기도모임 온라인 오후 8시

김기섭 담임목사
www.LAsarang.com

LA사랑의교회
평신도를 깨우고 이만2세를 책임지며, 이만2세를 섬기며, 선교명령을 순종하는 교회

261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 (Olympic & Edson 코너)
T. (213)386-2233

주일에배 오전 10:50
금요일참배와 삶 공부 오후 7:00
아침말씀예배(월-토) 오전 9:00

써니킴 담임목사

LA씨티교회
일터교회를 세우는 예수 공동체

741 S. Crenshaw Blvd., LA, CA 90005
T.(323) 833-9090

주일에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30
새벽예배 (토) 오전 6:30

엘리아 김 담임목사

나눔과 섬김의 교회
세상속에 나이가 나누고 섬기는 교회

439 S Western, #100, LA, CA 90020
T. (213) 272-6031

주일에배 오전 7:30, 9:00, 11:00
교육부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11:00, 9:30
청년부예배 오후 1:30

박은성 담임목사

나성영락교회

1721 N. Broadway, Los Angeles, CA 90031
T. (323) 227-1400 web@youngnak.com

주일에배 오전 10:3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주일학교 오후 8:00
주일학교 오후 10:30

김성원 담임목사

남가주새소망교회
예배 성경 선교를 받아 함께 달려가는 예수그리스도 공동체

11840 Paramount Blvd., Downey, CA 90241
T. (562)674-3016, cell. (562)417-1800
www.newhopechurchsc.org

주일에배 1부 오전 8:15
주일에배 2부 오전 9:50
주일에배 3부 오전 11:30
주일에배 4부 오후 2:00

금요일기도회 오후 7:30
수요/금요일예배 오후 7:30
세브기도회 월-금 오전 6:00
EM Worship Sunday 2:00

김일형 담임목사

새생명오아시스교회

1041 S. Oxford Ave. Los Angeles, CA 90006
T. (323)730-7000

주일에배 1부 오전 9:00
주일에배 2부 오전 11:00
금요일기도회 오후 8:3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이수호 담임목사

올림픽장로교회

3055 Wilshire Blvd, #220, LA, CA 90010
T. (213)387-1700 olympicch@gmail.com

주일에배: 아침 10시반
수요일예배: 저녁 7시
매일 오전기도회: 9-11시
매일 저녁기도회: 8-10시

라디오 방송설교
라디오서울 AM 1560
주일 아침 6시
주일 아침 8시

서사라 담임목사

주님의 사랑 교회
세계선교와 함께 예수님의 정결한 신부로 단장하는 교회

216 E. 31st St. Los Angeles CA 90011
T. (213) 574-9400
lordslovechristianchurch@yahoo.com

주일에배 1부 오전 8:00
주일에배 2부 오전 11:00
EM예배 오전 11:00

초등부 주일 오전 11:00
중고등부 주일 오전 11:00
토요일새벽기도회 오전 6:00 (온라인)

김형섭 담임목사

세계선교교회

927 S. Menlo Ave, Los Angeles, CA 90006
Tel. (213) 388-1927 www.wmcla.com

주일에배 오전 10:30
토요일새벽예배 새벽 6:30
EM 주일예배 오전 10:30

한현중 담임목사

크렌셔장로교회

1060 Crenshaw Blvd, Los Angeles, CA 90019
T. (213) 407-1600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30
교육부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월-토) 오전 5:30

국윤권 담임목사

충현선교교회
불러세(Calling), 고치고(Healing), 기르며(Maturing), 맞선다(Confronting)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818)549-9191 / choonghyun.org

주일에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30
3부 EWS 예배 오후 2:00
유종교동부 예배 오전 8:40

주일아침 성경공부 10:40
금요일기도회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이호민 담임목사

가디나선교교회

1044 W. 164th St, Gardena, CA 90247
Tel. 310/532-0191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유아부, 유.유.부, 초등부, 중고등부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45(화-금) / 6:20(토)

이항영 담임목사

남가주기쁨의교회

25500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326-0300, http://rpcsc.com

사우스베이 지역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30
3부 EWS 예배 오후 2:00
유종교동부 예배 오전 8:40

주일아침 성경공부 10:40
금요일기도회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이호민 담임목사

가디나선교교회

1044 W. 164th St, Gardena, CA 90247
Tel. 310/532-0191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유아부, 유.유.부, 초등부, 중고등부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45(화-금) / 6:20(토)

이항영 담임목사

남가주기쁨의교회

25500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326-0300, http://rpcsc.com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문서선교를 후원하는 교회

Christianity Daily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예배 오전 10:00
수요예배 오후 8:00
수요기도회 오후 9:00
새벽기도회(토) 오전 6:00

윤성현 담임목사

늘푸른동산교회

17116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562) 774-7224 / evergreenhill.org

1부예배 오전 8:30
2부예배 오전 11:00
EM 1부 9:30/ 2부 11:00
중/고예배 오전 11:00

유아/유치부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김정훈 담임목사

대흥장로교회

파송가라,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라(출3:9~10)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310) 719-2244 / dkpc.org

1부 예배 오전 8:00
2부 예배 오전 10:45
EM성인예배 오전 9:30

김경환 담임목사

은혜로교회

새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라
431 Madrid Ave. Torrance, CA 90501
Tel. 310)787-7766 / www.gwctorrance.com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2: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토)

이종용 담임목사

코너스톤교회

이땅의 참교회, 말씀대로의 교회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530-4040 / F. (310) 530-8400 / cornerstonetv.com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45
EM 예배 오전 9:45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KM장년예배 오후 2:00

토렌스 조은교회

주님앞에 드러짐으로 오병이여의 기적을 경험하는 공동체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T. (310)370-5500 / www.torrancecgcc.org

주일1부 오전 7:45
주일2부 오전 9:45
주일3부 오전 11:30
EM예배 1부 오전 9:45/2부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월-토 오전 6:00

고창현 담임목사

토렌스제일장로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
1880-1900 Crenshaw Blvd, Torrance, Ca 90501
T. (310) 618- 2222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GROEM(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방상용 담임목사

세리토스선교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여 Step Up 하고 Step Out 하는 교회 (창 6:7)
12413 E. 195 th St. Cerritos, CA 90703
T. (562)402-2919 www.cmchome.org

주일1부예배 8:00am
주일2부예배 9:30am
주일3부예배 11:15am
주일교육부예배 11:00am

주일EM예배 11:00am
수요찬양집회 7:30pm
토요새벽예배 6:00am
주중새벽예배(온라인) 5:30am

정유성 담임목사

오렌지한인교회

643 W. Malvern Avenue, Fullerton, CA. 92832
T. (714) 871-8320 / www.okcc.org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30
한여대학청년예배 오후 2:00

구봉주 담임목사

감사한인교회

예수 믿고 변화되어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 521-0991 / F. (714) 521-4636
www.thanksgivingchurch.com

모레노밸리 예배시간: 매주 일 오후 3시
LA 벨가든구국대: 매주 수요일 오전 11시

CRPC 모레노밸리한인교회/LA구국재단

24725 Alessandro Blvd. Moreno Valley CA 92553
T. (954) 200-0875

이우호 담임목사

1부 예배 오전 8:00
2부 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Youth/ College 주일오전 11:00

지영환 담임목사

다우니제일 교회

주를 기쁘시게하는 교회 (고후 5:9)
7948 Quill Dr. Downey, CA 90242
T. (562) 861-1004 www.downeyfirstchurch.org

주일예배 오전 11:30
찬양예배 오전 11:00(수)
종교기도회 오전 9:30(목)
제자상서 오전 9:30(금)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토)

림학춘 담임목사

라구나힐스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은혜와 열정의 GnP 300
24442 Moulton Parkway, Laguna Woods, CA 92637
T. (949)380-7777 / www.lagunaumc.org

1부예배 오전 7:00
2부예배 오전 9:00
3부예배 오전 11:30
청년예배 오후 2:00

성인 영어 예배 오전 9:00, 오전 11:00
일본어 예배 오후 1:15
주일학교 오전 9:00, 오전 11:00

김한요 담임목사

베델교회

역동적 복음, 능동적 선교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 (949) 854-4010 / F. (949) 854-4018

주일예배 1부 오전 7:30
2부 오전 9:15
3부 오전 11:30
4부 오후 2:00

중고등부 오전 11:15
토요일 오전 06:00
금요성령예배 오후 07:30
KM대학청년부 오후 2:30

박신웅 담임목사

얼바인은누리교회

다음세대를 세우고 복음으로 다가서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공동체
17200 Jamboree Rd., Irvine, CA 92614
T. (949)261-9100 / vision.onnuri.org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15
3부찬양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30

청년부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월-금)

남성수 담임목사

오렌지카운터한인교회

평신도 지도자들을 세워 초대교회 역사 이뤄가는 교회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3-1652 / kccroc.com

주일예배 1부 오전 7:45
주일예배 2부 오전 9:30
주일예배 3부 오전 11:30

수요여성예배 오전 10:00
금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평일) 새벽 5:30
(월/주일) 새벽 6:00

김종규 담임목사

오렌지카운터 제일장로교회

8500 Bolsa Ave,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9-9191 / oc1church.com

주일 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박 훈 담임목사

함께 걷는교회

하나님, 성도, 이웃과 함께 걷는 교회
6102 Stanton Ave., Buena Park, CA 90621
T. (213)598-9130 breadhoon@hanmail.net

주일 1부예배 8:00 AM
주일 2부예배 11:00 AM
새벽기도회 화-토 6:00 AM

금요찬양예배 7:45 PM
교회학교예배 11:00 AM

신용환 담임목사

주님세운교회

17910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 (310) 315-4020

LA 동부 지역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40
3부예배 오전 11:40
EM(Holy Wave) 오전 11:40

주일학교/중고등부 오전 11:40
대학청년부 오전 11:40
금요성령집회 저녁 7:30(금)
새벽예배 오전 5:20 (월-금)

우영하 담임목사

동부사랑의교회

복음으로 사는 사람 (창 12:2-3)
5540 Schaefer Ave. Chino, CA 91710
T. (909)590-3732 www.eastsarang.org

주일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20
영어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화-금) 오전 5:30
(토) 오전 6:00

구경모 담임목사

한빛장로교회

11608 Valley Blvd., El Monte, CA 91732
T. (626)444-0521

1부예배 오전 7:45
2부예배 오전 9:45
3부예배 오전 11:45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45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6:00

고송희 담임목사

아름다운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
17175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30
4부 청년예배 오후 7:45

EM 1부예배 오전 9:30
EM 2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출강해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월) 5:30 (토) 오전 6:00

인랜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로 사명을 위하여 사는 교회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 (909) 622-2324, F. (909) 622-1480 / inlandchurch.org

美 브루클린 태버네클 담임목사 “찰리 커크 암살은 ‘혐오행위’”

짐 심발라 목사. ©YouTube/Brooklyn Tabernacle

미국 뉴욕 브루클린 태버네클의 짐 심발라(Jim Cymbala) 담임 목사가 지난 14일(이하 현지시간) 설교에서 보수 기독교 활동가 찰리 커크(31)의 암살을 ‘혐오행위’로 규정하고, 일부 기독교인들이 그의 죽음을 기뻐하는 현상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심발라 목사는 “만약 찰리 커크의 죽음을 정당화하거나 만족을 느꼈다면, 당신은 매우 병든 상태이며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점검해야 한다”며 “기독교인은 누구의 죽음에도 기뻐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브루클린 도심에 위치한 브루클린 태버네클은 매주 약 1만 명의 신자가 모이는 다인종 교회다.

커크는 보수 성향 청년단체 ‘터닝포인트 USA’와 신앙 네트워크 ‘TPUSA Faith’의 창립자로, 지난 10일 유타주 오렐의 유타밸리대학교에서 연설 중 괴한의 총격을 받아 목에 치명상을 입고 사망했다. 그의 죽음은 전 세계적으로 엇갈린 반응을 불러일으켰으며, 일부는 공개적으로 환영의 뜻을 나타내 논란이 됐다.

버지니아 알렉산드리아에 위치한 역사적 대형교회 엘프레드 스트리트 침례교회의 하워드-존 웨슬리(Howard-John Wesley) 목사는 같은 날 “커크

는 자칭 ‘자랑스러운 인종차별주의자’(proud racist)였다”며 “그의 죽음을 애도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살해당할 만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국가가 조기로 계양되는 것을 보며 분노를 느낀다”고 말해 대조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심발라 목사는 설교에서 “우리는 지금 증오가 만연한 세상에 살고 있다. 교회가 불타고, 기독교인이 살해당하며, 정치적·인종적 갈등이 증오를 키우고 있다”며 “이러한 세상에 교회는 복음으로 응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요한일서 3장 11~15절, 4장 19~21절을 인용하며 “형제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수 없다”고 전했다.

그는 또한 “조지 플로이드의 죽음을 기뻐한 사람도 병든 것”이라며 “예수 그리스도는 플로이드와 커크, 그리고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셨다. 예수께서 사랑하신 사람의 죽음을 우리가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심발라 목사는 끝으로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인종, 정치, 이념을 기독교 신앙보다 우선시하는 경우가 많다”며 “우리는 무엇보다 먼저 ‘그리스도인’으로 자신을 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미경 기자

해리포터 저자 J.K. 롤링 “내 안에 하나님 향한 빈 공간 있지만...”

작가 J. K. 롤링 ©TODAY 보도화면 캡처

해리포터 저자 J.K.롤링은 최근 소셜미디어 ‘X’를 통해 한 이용자가 “변화된 신념이 무엇이었나”는 질문에 답하며, 신앙적 고민과 정치·사회적 입장 변화를 함께 언급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롤링(60)은 “십대 중반 이후 종교적 신앙을 두고 계속 씨름해왔다”며 “내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빈 공간이 있는 것 같지만, 그것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 여전히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아마 이 문제는 무덤까지 가져갈 것 같다”며 신앙 문제를 끝내 확신하지 못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녀는 “믿음은 보지 않고 믿는 것이라 생각한다”며 “그래서 아마도 이 문제는 평생 미해결로 남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롤링은 성공회 전통 속에서 자랐으며 현재 스코틀랜드 교회 소속으로 알려졌다.

종교적 고민뿐만 아니라 정치적·사회적 신념의 변화도 언급했다. 롤링은 “과거에는 일방적 핵무기 해체를 지지했고, 대마초가 무해하다고 믿었으며, 안락사도 찬성했다”고 밝히면서 “그러나 가까운 이가 대마초로 인해 정신 건강이 무너지는 것을 목격했고, 의사인 남편(닐 머리)

을 통해 안락사가 병약자와 취약계층에게 강요될 수 있다는 위험성을 깨달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20대 초반에는 남녀 차이가 전적으로 사회화의 산물이라 믿었지만, 관련 연구를 읽고 난 후 생각이 바뀌었다”고 말하며 성별 정체성 논란에 대한 입장 변화를 강조했다.

실제로 롤링은 최근 몇 년간 성별 구분을 없애려는 트랜스젠더 정책을 공개적으로 반대해왔다.

롤링은 2020년 ‘생리하는 사람들(people who menstruate)’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기사를 비판하며 “그들을 지칭하는 단어가 있었는데 잊은 건가?”라며 풍자적인 단어를 나열해 성별 구分的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같은 해 “만약 성별이 실재하지 않는다면, 동성애도 실재하지 않는다. 여성들의 현실이 지워진다”며 “나는 트랜스젠더들을 알고 사랑하지만, 성별 개념을 없애는 것은 여성의 삶을 논의할 수 있는 권리를 없애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진실을 말하는 것이 혐오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미경 기자

교회 분쟁, 때로는 ‘사소한 이유’가 갈등 불씨



©pixabay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는 샘 레이너 목사의 기고글을 ‘교회 갈등의 주요 원인’이라는 제목으로 지난 14일(이하 현지시각) 게재했다.

레이너 목사는 플로리다의 웨스트 브래든튼 침례교회의 담임목사로 섬기고 있으며 처치 앤서스(Church Answers)의 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다음은 기고글 주요 내용이다.

교회 갈등은 교리·운영·지도력과 같은 중대한 문제에서 비롯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사소하고 엉뚱한 이유로 발생한다.

일부 교회에서는 목사의 수업 길이를 두고 갈등이 벌어지거나, 부지를 어린이 놀이터로 활용할지 묘지로 사용할지를 두고 다툼이 일어난 사례가 보고됐다. 찬양 인도자가 눈을 감고 노래하는 문제를 놓고 갈등한 교회도 있었으며, 제초기를 어떤 모델로 구매할지를 두고 두 차례 회의 를 연 교회도 있었다.

이 같은 갈등은 겉보기에는 사소해 보이지만, 그 배경에 더 깊은 문제가 숨어 있다.

첫째, 겉으로 드러난 문제는 본질이 아니다. 예를 들어 카펫 색상을 두고 다투는 경우 실제로는 권력, 영향력, 또는 ‘내 목소리가 들리고 있는가’라는 감정적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다.

둘째, 전통에 대한 감정적 집착이 작용한다. 교실 배치나 절기 행사, 장식과 같은 작은 전통도 교인들에게는 과거 세대와의 연결고리로 여겨지며, 변화는 곧 정체성의 상실처럼 느껴진다.

셋째, 신뢰 부족이 작은 문제를 증폭시

킨다. 신뢰가 높은 교회에서는 사소한 의견 차이가 쉽게 봉합되지만, 불신이 자리잡은 교회에서는 작은 결정도 두려움과 의심 속에서 해석된다.

넷째, ‘마지막 지푸라기’ 현상도 있다. 장기간 쌓인 불만이 하찮은 문제에서 폭발하며, 실제로는 더 큰 문제를 피해 상대적으로 다루기 쉬운 이슈에 분노가 집중된다.

다섯째, 대체 갈등이 발생하기도 한다. 교인들이 가정, 직장, 건강 등 개인적 스트레스를 교회 문제에 투사하면서, 교회가 불만의 배출구가 되는 경우다.

여섯째, 교회 정체성과 개인 정체성의 결합이 원인이 되기도 한다. 교회의 작은 변화가 곧 자신의 존재와 공동체 정체성에 대한 위협으로 받아들여져 강한 저항으로 이어진다.

마지막으로, 사소한 문제일수록 다루기 쉽기 때문에 갈등의 표면적 소재가 되기도 한다. 부서 명칭 변경이나 예산 세부 항목을 두고 다투는 것이, 관계 파고나 뒷말과 같은 더 본질적인 문제를 직면하는 것보다 편하기 때문이다.

교회가 사소한 문제로 갈등하는 것은 불가피하지만, 진짜 위험은 그것이 반복되며 신뢰가 무너질 때 발생한다.

교회의 건강성은 갈등의 부재가 아니라, 갈등을 어떻게 겸손과 은혜로 해결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가에 달려 있다.

사탄은 큰 이슈가 아니라, 방치된 작은 문제만으로도 교회를 분열시킬 수 있다.

이미경 기자

美 샌디에이고 카운티 목사 자택서 피살... 지역사회 충격



펠리페 아센시오 목사와 그의 가족. ©GoFundMe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 카운티 라모나에서 한 목사가 자택에서 총격을 받아 숨지는 사건이 발생해 지역사회가 큰 충격에 빠졌다. 용의자는 현재 구금 중이며 경찰은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다.

샌디에이고 카운티 보안관실은 지난 14일(현지시간) 라모나 에잇 스트리트에 위치한 자택에서 총격을 받아 숨진 인물이 템플로 몬테 호렘(Templo Monte Horeb) 교회의 펠리페 아센시오 목사라고 확인했다.

현지 언론 KGTV에 따르면 경찰은 용의자의 신원과 범행 동기는 공개하지 않았지만, 사건은 현재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아센시오 목사는 단순한 강단의 설교자를 넘어 신앙적 멘토이자 아버지 같은 인물로 교인들에게 깊은 존경을 받아왔다. 교인 미겔 에르난데스는 “믿기 힘든 일이다. 지난 수요일 예배 때도 여전히 그가 문을 열고 들어와 모두에

게 인사할 것 같았다”고 말했다. 친구 프란시스코 토마스는 “그는 제 인생이 힘들었을 때 집으로 맞아주었다”며 “좋은 친구이자 남편, 아버지, 그리고 최고의 목사였다”고 회상했다.

아센시오 목사는 아내와 두 자녀를 남겼다. 지역 주민들은 유가족을 돕기 위해 모금 운동에 나섰으며, 고펀드미(GoFundMe) 페이지가 개설돼 장례 및 범죄 관련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모금 페이지 작성자는 “사랑하는 남편이자 두 자녀의 아버지인 펠리페를 잃은 제 언니 아버가일을 대신해 도움을 요청한다”며 “갑작스러운 상실로 가정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크든 작든 모든 후원이 가족에게 위로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여러분의 기도와 친절, 그리고 관대함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길 바랍니다”고 덧붙였다.

이미경 기자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일(아기도회)(마지막주) 오후 8: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20(화-금) 오전 6:00(토)
EM예배 오후 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할렐루야한인교회
제자된 삶을 실천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랑의 공동체

19648 Camino De Rosa, Walnut, CA 91789
T. (909) 595-3110 hnsla@hnsla.org

1부예배 오전 7:45
2부예배 오전 9:10
3부예배 오전 12:00
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화-금) 오전 6:00, (토) 오전 6:30

ECO선한목자교회
교회여, 성숙하라!

2600 Grand Ave., Chino Hills, CA 91709
T.(909)591-6500 sunhanchurch.com

KM 주일예배 EM 주일예배 새벽예배
- 1부 07:30AM - 1부 09:00AM - 광일(월-금) 05:00AM
- 2부 09:15AM - 2부 11:00AM - 토요일예배 06:00AM
- 3부 11:00AM

김지성 담임목사

글로벌선교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생명의 공동체

23425 Sunset Crossing Rd Diamond Bar, CA 91765
T. (909)396-4441 www.igmc.org

대예배 11:00 AM Youth (8th ~ 12th) 11:00 AM
아동부 (1-5학년) 11:00 AM 수요 찬양 예배 수요일 7:30 PM
유아, 유치부 (2-5세) 11:00 AM 새벽기도회 화-토요일 6:00 AM
영아부 (2개월 이하) 11:00 AM

장수영 담임목사

언약 교회
은혜의 말씀, 사랑의 돌봄

1750 N. Towne Ave., Pomona CA 91767
T. (909)622-8815 https://covenantkoreanchurch.com

주일예배(KM) 오전 10:30 중·고등부(Youth) 오전 10:30
주일예배(EM) 오전 10:30 대학청년부(College) 오전 10:30
유년부(K-2) 오전 10:30 한글학교 주일 오후 12:40
초등부(3-5) 오전 10:30 새벽예배(화-토) 오전 6:00

최현규 담임목사

주님 CHURCH

주일예배 401 S. Palm St. La Habra, CA 90631
T. (626)901-919 Email : joonim0623@gmail.com

예배시간 매주오전 11:00

강문수 담임목사

로렘나무교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13133 Le Parc #1003, Chino hills, CA 91709
T. (909) 519-0876

LA 북부 지역, 라스베가스

주일 1부 오전 9:00 주일학교 오후 12:30
주일 2부 오후 12:30 주중새벽기도회 오전 5:30
젊은이 예배 오후 2:00 토요일새벽기도회 오전 6:00

김경진 담임목사

기쁜우리교회
주의 말씀은 내 밭에 동아이 내 길에 빛이이니이다

125 S. Louise St, Glendale, CA 91205
T. (818)662-0400 www.joyfulccc.org

주일1부예배 오전8:00 중·고등부(가게교회) 오전11:00
주일2부예배 오전11:00 영아부예배(민음체) 오전11:00
유아유치부 오전11:00 새벽기도회(화-토) 오전6:00
초등부 오전11:00 Youth 금요일(금) 오후7:30

유경재 담임목사

나성북부교회
성경을 배우며 성경에 충실한교회

8756 Woodley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893-8755

주일 1부 오전 8:00 중·고등부 오전 10:30
2부 오전 10:30 한아침년 오후 12:30
EM예배 오전 10: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6:00

이정현 담임목사

만남의교회
거룩한 믿음으로 도약하는 교회

18101 Lassen St, Northridge, CA 91325
T. (818)882-9191 F. (818)882-9777 www.churchmannam.com

주일 1부 8:00AM 중·고등부 9:30AM/11:15AM
주일 2부 9:30AM 수요일기도회 7:30PM
주일 3부 11:15AM 새벽예배 화-토 5:30AM
영아, 유아, 유치부 9:30AM/11:15AM

손창민 담임목사

에브리데이교회
예수로 충만한 교회

17037 Devonshire St, Northridge, CA 91325
Tel. (818) 832-6628 www.churcheveryday.org

1부 예배 오전 8:30 EM예배 (1부)오전 9:00
2부 예배 오전 11:00 EM예배 (2부)오전 11:00
금요일(아침)예배 오후 7:30 한아침년 주일오후 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오전 6:00(토)

오영찬 담임목사

웨스트힐장로교회
예수님처럼 믿는 교회(Believe Like Jesus)

23350 Welby Way, West Hills, CA 91307
T. (818) 884-2391

주일 대예배 오전 11:00
영아예배 오전 10: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6:00(화-토)

곽덕근 담임목사

은혜와평강교회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

9140 Haskell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 894-9266

주일예배 오후 12:30
주일 EM예배 오전 12:30
새벽기도회 오전 6:00 (화-토)
화요일성경공부 오후 7:30

이건창 담임목사

발렌시아 샘물교회

25222 Wiley Canyon RD, Santa Clarita, CA 91321
Tel. (661)219-5434 www.sammmool.org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금요일성경침례 저녁 7:45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월요일 5:30 / 토 오전 6:00
주일 3부 영아예배 오후 1:00

이충환 담임목사

주안에 교회
In Christ Community Church

www.icccla.org
19514 Rinaldi St., Northridge, CA 91326T
T.(818)363-5887 iccc.office1@gmail.com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새벽예배(화-금) 새벽 6:00
목요일예배 2부 오전 11:00
교목부예배 주일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저녁 7:00

박성호 담임목사

베이커스필드 ANC은누리교회

6700 Schirra Ct, Bakersfield, CA 93313
T. (661) 831-2262 / onnuribk.com/anc

주일예배 오전 10:40
목요일예배 오후 7:00
토요일새벽 오전 5:30

지동근 담임목사

베이커스필드 아름다운교회

4500 Buena Vista Rd, Bakersfield, CA 93311
T. (661) 472-5979

주일예배 1부 오전 8:15 (한국어)
주일예배 2부 오전 10:15 (한국어, 스페인어)
주일예배 3부 오후 12:15 (한국어, 교목부)
새벽예배(월-토) 새벽 6:00
(7175 W Oquendo Rd, Las Vegas, NV 89113)

강일진 담임목사

라스베가스 순복음교회

9525 W Maule Ave, Las Vegas, NV 89148
T. (702) 453-1223 / www.fglvchurch.com/

주일예배 1부 오전 9:45
주일예배 2부 오전 11:30
유초등부 주일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저녁 7:30
중·고등부 주일 오전 11:30 새벽예배(화-토) 새벽 6:00

임인철 담임목사

라스베가스 중앙교회

7570 Peace Way, Las Vegas, NV 89147
T. (702) 489-2999 / www.joonganglv.org

주일예배 1부 오전 11:00
주일예배 2부 오후 2:00
EM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화-토) 새벽 6:00

송상용 담임목사

라스베가스 즐거운 제자교회

101 S Rancho Dr, Las Vegas, NV 89106
T. (702) 378-9828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교육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참회기도회 오후 7:00
토요일새벽예배 오전 7:00 E. lkvchurch@gmail.com

이정환 담임목사

라스베가스 커뮤니티 교회
예수님의 제자되어 성령님의 열매 맺는 교회

622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T. (702) 252-0077 / lkvcc.org/lkvcc/index.php

주일예배 오전 9:00, 오전 11:00(설교 동시통역)
금요일찬양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조종철 담임목사

라스베가스 갈보리장로교회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T. (702) 579-7576 / E. drjho@hotmail.com

주일 1부 예배 11:30 AM
주일 2부 예배 1:30 PM
수요일예배 7:00 PM
새벽기도회 화-토 5:50 AM

임명진 담임목사

라스베가스 우리종은장로교회

8425 W. Windmill Ln. Las Vegas, NV 89113
T. (702)685-2212, woorioeunchurch.com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크리스천 비즈니스

CHRISTIAN BUSINESS

Annie Moon
Insurance Agent
License #0B51378
MEDICARE(메디케어 보험)
213-503-1669
4055 Wilshire Blvd, #321., Los Angeles, CA 90010
e-mail : 429annie@gmail.com



아이넥스 바디샵
최고의 기술과 완벽함을 추구합니다.
자동차 사고...
더 빠르고 완벽한 복원을 원하신다면
이제 아이 넥스입니다.


Quality Body Work & Life Time Warranty
2811 Leeward Ave Los Angeles, CA 90023
E-Mail: inexcollisioncenter@gmail.com
213.383.1230
FREE ESTIMATE - TOWING

헤어컷의 명장이 되고 싶으십니까?
* 헤어컷 배워 선교하실 분(무료)클레스
* 라이선스는 있으나 기술이 없으신 분
* 빠른 시간 안에 헤어드레서가 되고 싶은 분
* 격조 있는 Hair Cut을 구사하고 싶은 미용사
문의 (213)392-2323


-아시아미용선수권 우승
-아시아미용가협회수석강사
-영국 알란 Beauty College 한국강사
-독일 슈비츠코프(Beauty College) 초대 한국강사
-한국국가대표 심사위원 트레이너 역임

드림 미디어, 교회 음향 무료 컨설팅
✓ 좋은 소리는 예배에 은혜를 더합니다
✓ 소리는 예배당에 맞춰 세팅해야 합니다
1. 구축 서비스 2. 교회 방문 3. Solo시스템 4. 상담 및 교육
323-643-3033 **dmediacontents@gmail.com**



치질! 수술없이 시술로도 가능한가요?
치질증상으로 항문소양증, 항문과
포리뼈 통증 출혈로 앉기도 두렵고
매번 화장실 가는것도 무섭다. **각종 보험 취급**
초스피드 다이어트 1달 - 7~25 lbs • 손목 터널 증후군 **최치료 가능합니다**
3대째 가업 **영선한의원 213.380.7800**
3663 W. 6th St., #308, LA, CA 90020


배변은 숙면제거와
먹으면서 제중 줄고
몸 전체 부종 빠지는 약
한달부터 \$70

각종모임 주문환영 (교회, 골프모임, 동호회,...)
고기, 김치만두
차림 오반떡
술빵
새우만두
떡갈비 정식
떡갈비 김밥
Cooking Mom T. 213.378.8530
3660 Wilshire Blvd. #120 LA, CA 90010



**F1 PLUMBING**
업계 최저가격
드레인 클린 \$30불 부터
213-434-8947

OUR SERVICES:

- Water Leaks & Pipe Clogs
- Drain & Sewer Cleaning
- Pipe Repair & Replacement
- Water Heaters
- Toilets, Sinks, Disposal

〈조나단 에드워즈의 선교신학〉 출간

캘리포니아 프레스티지 대학교(California Prestige University, 구 미주장신대) 신춘식 교수(Ph.D.)의 『조나단 에드워즈의 선교신학: 역사를 보는 두 렌즈 이론』이 9월 10일 출판사 CLC에서 출간됐다.

18 세기 대각성 운동을 이끈 조나단 에드워즈를 '선교사'라는 독창적 시각으로 재조명하며, 복음주의 신학과 선교학이라는 두 해석의 렌즈로 그의 생애와 사상을 분석했다.

총 536쪽 분량의 이 저작은 학문적 정밀함과 더불어 경건과 실천, 부흥과 목회와 선교에 대한 통찰을 아우르는 '통합적 선교신학'을 담고 있다. 저자는 8년간 인도 선교 현장에서 경험한 눈물과 기도를 기반으로, 에드워즈의 신학이 오늘날 선교 현장과 신학교육, 목회 사역 속에서도 생생히 적용될 수 있는 지혜임을 강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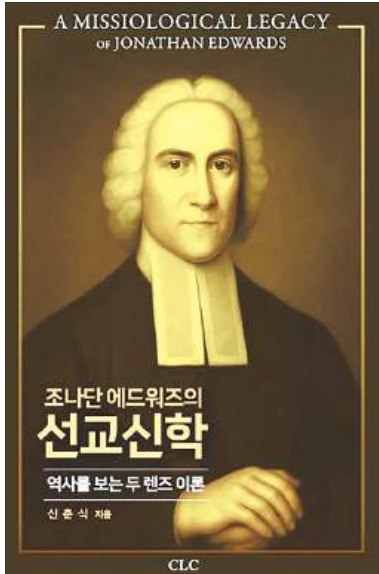
저자는 조나단 에드워즈를 단순히 신학자나 부흥운동가로운 한정하지 않고, 스톡브리지 인디언 선교와 『브레이너드의 일기』 편집·출판을 통해 국제 선교 운동을 촉진하고 선교 정보를 확산시킨 선교사적 리더로 재조명한다.

에드워즈는 약자의 대변자이자 교육자, 복음 전도자로서 선교적 사명을 실천했으며, 선교 운동의 확산, 선교 정보의 보급, 국제적 기도 네트워크 구축, 구속사적 해석을 통한 선교 이해, 그리고 지상명령의 개념 확산에 크게 기여했다. 저자는 에드워즈의 감작스러운 죽음을 단순한 비극이 아니라, 모든 신자와 사역자가 본받아야 할 신앙과 선교의 유산을 보여주는 십자가적 희생과 순교적 삶의 모범으로 해석한다.

특히 저자는 '두 렌즈 이론(Two-Lens Theory)'을 제안하여, 복음주의 신학적 관점과 선교학적 관점을 동시에 적용함으로써 조나단 에드워즈를 보다 균형 있게 이해할 수 있는 새 틀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기독교 선교 역사를 깊이 있게 성찰했다. 이번 출간에 대해 교계와 학계의 지도자들이 다음과 같이 입을 모아 추천했다.

이승중 목사(KWMC 대표의장) "저자는 에드워즈를 세계 선교의 비전을 제시한 선교사적 리더로 조명하며, 그의 죽음을 십자가적 희생의 모범으로 제시했다. 획기적인 연구이다."

강준민 목사(L.A. 새생명비전교회 담임) "복음의 본질과 교회의 사명을 일깨우며, 선교적 영성과 디아스포라 현장의 생생함을 담은 이 책은 부흥과 선교를 갈망하는



조나단 에드워즈의 선교신학 ©CLC

복음주의 신학적 관점과 선교학적 관점을 적용해 에드워즈의 사상 분석

모든 목회자와 선교사, 신학생, 하나님 나라의 부흥을 사모하는 이들에게 진심으로 추천한다."

이상명 박사(CPU 총장) "에드워즈의 부흥이 어떻게 선교로 확장되었는지를 논증하며, 교회가 회복해야 할 방향을 제시한다. 동시에 에드워즈 연구의 탁월한 입문서 역할을 할 것이다."

마즈던의 신학적 렌즈와 피어슨·라투렛·윈터의 선교학적 렌즈 임윤택 박사(CPU 선교학 박사원 원장) "신춘식 교수는 역사신학과 선교학을 아우르는 학문적 배경과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에드워즈를 마즈던의 신학적 렌즈와 피어슨·라투렛·윈터의 선교학적 렌즈로 입체적으로 조명했다."

정부홍 박사(에드워즈대학교 총장) "에드워즈의 선교적 비전을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해석하며, 신학적 기준을 제시하는 이 책은 에드워즈 연구자들과 선교 신학을 탐구하는 모든 신학도, 선교 실천자들의 필독서이다."

라은성 박사(전 총신대학교 역사신학 교수) "역사신학과 선교학을 겸비한 통찰로 에드워즈의 부흥과 선교를 생생히 조명하며, 독자는 마치 에드워즈와 직접 인터뷰하는 듯한 생동감을 얻게 될 것이다."

Dr. Sebastian Kim(Fuller Theological Seminary) "에드워즈의 삶을 선교학적 시각으로 새롭게 해석한 이 책은 기존 연구와 차별화된 통찰을 제공하며, 세계 학문 공동체 속에서도 의미 있는 기여를 한다."

박기호 박사(풀러신학교 선교

신학대학원 원로교수) "신춘식 박사는 인도 선교 현장과 풀러신학교대학원에서의 연구 경험을 바탕으로, 조나단 에드워즈의 선교 사역을 깊이 있게 탐구하고 탁월하게 분석해냈다."

철가방 소년에서 복음 전도자로 신춘식 교수는 목회자, 선교사, 학자라는 세 가지 소명을 아우르는 통합적 지도자이다.

그는 CGN TV 에서 "철가방 소년에서 복음 전도자로"라는 이야기로 소개된 바 있다. 지리산 골짜기에서 어린 시절 지계를 지며 가족을 도왔고, 청계천에서 낮에는 철가방을, 밤에는 책가방을 들고 다니며 배움의 길을 이어갔다. 중학교 졸업 후 1 년 만에 고등학교 과정을 검정고시로 마치고 대학 진학을 준비하던 중 결핵 입과선염으로 큰 고난을 겪었지만, 말씀을 붙들며 치유의 은혜를 경험했다. 그 과정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며 사역자의 길을 걷게 되었고, 강원도 양구에서 군중병으로 복무한 뒤 독학으로 교육부 영어영문학사 학위를 취득하며 신학의 길을 본격적으로 걸어갔다. 그는 총신대학교(B.A.), 총신대 신학대학원(M.Div.), 총신대 일반대학원(Th.M.)에서 역사신학을 전공하며 학문적 토대를 쌓았고, 성경 암송과 말씀 중심의 삶으로 '걸어다니는 성경관주'라는 별명을 얻을 만큼 말씀에 깊이 뿌리내린 신앙의 사람으로 자라났다.

대한민국에서 다양한 교회 사역을 경험한 그는 2007 년, 어린 세 자녀와 아내와 함께 인도로 선교사로 떠나 8 년간 신학교 강의와 목회자 훈련, 현지 지도자 양성에 헌신하였다. Asia Evangelical Theological College & Seminary, New Life College, Bethel New Life College 등에서 교수로 섬기며 신학 교육과 현장 사역을 유기적으로 연결했다.

2015 년 인도 정부의 추방 정책으로 미국에 거주지를 옮긴 뒤, 풀러신학교에서 D.Min.(Global Mission)을, CPU 에서 Ph.D.를 취득했다. 현재 저자는 한인 디아스포라교회를 섬기며 CPU 선교학과 교수이자 아카데미 어드바이저로서 CPU 박사원에서 연구하는 전세계 선교사들과 목회자를 섬기며 차세대 선교학자를 양성하고 있으며, GMS 미국 서부지부 지부장으로 세계 선교 사역을 섬기고 있다.

기사제공: 캘리포니아 프레스티지 대학교



ADU 전문

리모|델|링

Kitchen & Bath 완전 리모델링

디자인
설계
시공

실내구조
변경

집수리
일체

“25년 건축의 달인과 지금 상담해 보세요”

실제 작업 사진
보러가기



- Kitchen 완전 리모델링 4-5일 **완성**
- Bathroom 완전 리모델링 5-6일 **완성**



K-Urban Builders
CSLB # 854389

견적
상담



213-310-1800

2621 W. Olympic Blvd. #205
Los Angeles, CA 90006

견적
상담



949-781-9111

Show Room 6904 Oran Cir.
Buena Park, CA 90621

진유철 칼럼

하나 된 믿음의 온 세대를 위해



진 유 철 목사
나성순복음교회

영국은 18-19세기 근대 개신교 선교운동의 중심지 역할을 했던 나라였습니다. 인도선교사 윌리엄 캐리, 중국선교사 허드슨 테일러, 아프리카선교사 데이비드 리빙스턴 등이 다 영국 선교사였습니다. 그리고 19세기 성경을 통치 기반으로 삼았던 빅토리아 여왕 때는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불리어질 정도로 번성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기독교가 힘을 잃어가는 나

라가 되고 있습니다. 현 런던 시장 ‘사디크 칸’은 확고한 이슬람교 신자로 이미 런던은 15% 이상이 무슬림입니다. 또 지금 영국의 수상 ‘리시 수낙’은 인도계 힌두교인입니다. 이전 국회의원 선거를 할 때도 성경이 아닌 힌두교의 경전에 손을 얹고 맹세했고, 언제나 힌두교 축제에 참석하는 사람입니다.

한국도 비슷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2000년대 초 군종 목사로 섬겼던 목사님이 최근 한국을 가서 보고 충격 속에 쓰신 글을 보니까 당시 장병들이 300여 명씩 모이던 군인 교회에 15명 내외의 장병밖에는 모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미전도 종족으로 분류하는 복음화율이 3%인데, 한국 대학생 신자율이 4% 이하가 되어서 대학가의 선교단체들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결혼을 앞둔 믿음의 청년들이 믿음의 배우자를 구할 수 없다는 아우성이 들린 지 이미 오래되었고, 주일학교가 있는 교회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코로나로 무수한 작은 교회들

이 문을 닫았고, 30대의 젊은 개척교회 목사보기가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렵다고 합니다. 한때 교회부흥을 간증하던 한국이 이렇게 순식간에 무너지고 있음이 놀랍습니다. 청교도의 나라 미국에 사는 우리들도 경험하고 있는 것은 많은 이민자들이 섞여 살고, 빨리 왕래하며 정보와 지식이 더하여지면서 바른 신앙을 지키기가 쉽지 않은 세상이 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사탄의 무서운 공격이 날로 더하여 지고 있습니다. 세상은 인터넷, 유튜브, 드라마, 영화, 맛집, 핫플레이스 투어나 명소여행 등으로 화려하고 요란해지고 있고, 사람들은 편하게 즐기려는 자기 이기주의의 동물 속으로 점점 더 깊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십자가 은혜의 첫 사랑을 지켜야 하고, 우리의 다음 세대가 바른 믿음을 이어가야 인생의 성공이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EM과 신앙으로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

이 무겁게 다가옵니다.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은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앞에 온 세대가 함께 서는 구원에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 다음 세대와 영적으로 결이 같아야 하고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앎이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벧전 5:8-10) 우리 교회는 온 세대가 잠깐의 불편함과 고난을 견디며 함께 예배드리고 한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하여 성령 충만하므로 세상의 대적 마귀를 이기는 믿음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살람!

강준민 칼럼

깊은 상처, 더 깊은 능력



강 준 민 목사
새생명비전교회

인간은 연약합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쉽게 상처를 받습니다. 상처를 받으면 아픔입니다. 상처는 흔적을 남깁니다. 몸과 마음이 지칠 때 상처를 받으면 더 아픔입니다. 실패와 상실의 때에 상처를 받으면 더 고통스럽습니다. 피곤할 때는 작은 상처에도 쉽게 무너집니다. 무엇보다 상처는 대개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 받게 됩니다. 칼로 찌르려면 가까이 다가가야 하듯, 관계의 가까움은 위로가 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눈물을 씻어주고 닦아줄 수 있는 것도 가까운 이들입니다. 멀리서는 눈물을 씻어 줄 수도 없고, 눈물을 닦아 줄 수도 없습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상처를 주고받는 일입니다.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어렵고 때로는 아픈 사랑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상처만 받는 것만 아니라, 알게 모르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상처로부터 완전히 자유한 사람은 없습니다. 상처가 없는 곳은 무덤뿐입니다. 죽은 자는 더 이상 상처를 받지 않습니

다. 그렇기에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전 15:31)라고 고백했습니다. 자아를 내려놓을 때 비로소 상처를 초월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상처는 다양한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배신, 상처, 상실, 실패의 상처가 있습니다. 학대와 언어폭력으로 인한 상처가 있습니다. 죄책감과 후회의 상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한 상처가 있습니다. 저 역시 상처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가능한 상처를 덜 받고 덜 주며 목회하려고 애쓰지만, 늘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날마다 무릎을 꿇습니다. 마음의 정원을 가꾸듯 기도의 자리에서 제 영혼을 돌보고 있습니다.

상처의 신비는, 상처가 오히려 더 아름다운 생애를 가능케 한다는 데 있습니다. 상처를 바르게 치유하고 다르면 성숙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깊은 상처가 깊은 성숙을 만들어냅니다. 상처의 경험은 공감 능력을 길러주고, 상처 입은 이들과 함께 울 수 있는 마음을 열어 줍니다. 상처를 통해 인생을 더 깊이 이해하고, 사람을 더 넓게 품을 수 있습니다.

가장 깊은 상처가 가장 깊은 힘이 될 수 있는 이유는, 깊은 상처 위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육체의 가시라는 고통을 안고 살았으나, 그 연약함 위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렀습니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고후 12:9). 그래서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약한 그때에 곧 강함이라”(고후 12:10).

상처는 열림입니다. 열린 상처 위에 하나

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성령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치유의 빛이 임합니다. 마음과 낙산은 열리지 않으면 위험합니다. 상처를 받은 경험 때문에 마음을 닫고 살면 안 됩니다. 상처를 두려워하여 마음을 닫으면, 좋은 것도 들어오지 못합니다. 닫힌 그릇에는 아무 것도 담을 수 없습니다.

상처는 또한 깨어짐입니다. 곡식이 으깨져 고운 가루가 될 때 소제가 드러지고, 장미가 새벽 이슬 속에서 으개질 때 가장 귀한 향유가 만들어집니다. 상처가 가꾸어지면 향기가 됩니다. 하나님은 완고한 자가 아니라, 상처로 부드러운 사람, 깨어진 사람을 존귀하게 사용하십니다. 성경 속 인물들을 보십시오. 그들 모두는 상처 입은 자들이었고, 깨어짐을 경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상처를 잘 가꾸면 상처는 성장의 기회가 됩니다. 상처는 공감과 연민을 키우고, 삶의 목적과 사명을 발견하게 합니다. 상처는 믿음을 키우며 영성을 깊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깊은 상처를 깊은 힘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첫째, 상처를 인정하십시오. 상처를 인식하는 순간 치유가 시작됩니다. 억누르거나 부정하면 더 깊은 상처가 남습니다. 환대할 때 상처는 더이상 적이 되지 않고 우리의 친구가 됩니다.

둘째, 상처를 통해 배우십시오. 벤저민 프랭클린은 “고통은 교훈을 준다.”라고 말했습니다. 상처를 스승으로 삼으십시오. 저는 성공보다 실패에서 배웠습니다. 저는 안락함보다 시련을 통해 더 많이 배웠습니다. 상처와 연약함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삶의

깊이를 더할 수 있었습니다.

셋째, 상처를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데 사용하십시오.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십시오. 상처가 상처를 치유합니다. 같은 상처를 경험한 사람만이 그 아픔을 깊이 위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처가 사명이 될 수 있습니다. 저 역시 이민 목회의 실패를 통해, 실패의 고통 속에 있는 목회자들을 위로하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넷째,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하십시오. 용서는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용서는 상처를 진주로 바꾸는 힘입니다. 사랑하지 못하더라도 먼저 용서하십시오. 그 순간 우리는 미움과 복수의 감옥에서 벗어납니다. 용서 없는 사랑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사랑을 지속하게 하는 힘은 용서입니다. 용서는 사랑을 소생시키는 산소입니다.

다섯째, 상처를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상처가 끝이 아닙니다. 인간은 연약하지만 생각보다 질깁니다. 인생은 상처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상처가 새로운 길을 열어 줍니다.

상처를 무조건 미화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모든 것은 양면이 있습니다. 김정호 시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에 상처 아닌 꽃이 없습니다.” 아름다운 꽃은 상처와 함께 피어납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깊은 상처를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상처 위에 부활의 능력이 임했습니다. 주님의 상처에서 흘러나온 보혈과 생수로 우리는 용서와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가장 깊은 상처를 통해 가장 깊은 능력을 경험하시길 기도합니다.

2025미주기독교대학박람회



TALBOT
SCHOOL OF THEOLOGY
BIOLA UNIVERSITY

신입생 모집

▶

탈봇신학교 한국어 목회학박사 학위과정

Korean Doctor of Ministry

• 세계 최고의 교수진

• 영상 형성 집중 프로그램

• 실용적인 사역 대비

• 오프라인 수업

• 마국 비자 (I-20) 발급

카카오톡 채널: "탈봇" 검색

유튜브: "탈봇신학교" 검색

Email: talbot.korean.dmin@biola.edu

13800 Biola Avenue, La Mirada, CA 90639 | Tel : 562-903-4705



미 성 대 학 교

America Evangelical University

• ABHE, 정회원, ATS, 정회원

• 기독교학(BA), 목회학석사(M.Div), 상담학석사, 선교학석사, 목회학박사

• 연방정부 승인 SEVIS I-20 자체 발행

• 안수 후 미주 및 한국에서 사역 가능

• 철학박사(Ph.D)과정 신설

• 입학상담: 조성호 박사 T(626)227-3454

미래를 책임지는 미성대학교 총장 : 이상훈 박사

1204 W. 163rd St.Gardena, CA 90247

Tel (323)643-0301, Fax(323)643-0302, www.aeu.edu/info@aeu.edu



for the Church

MID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미드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 한국부

- 남침례교 6대 신학교(HLC & ATS 인가)

- 100% 한국어

- I-20 발급

- 저렴한 등록금과 장학 혜택

성경사역학철학박사

목회학석사

교육목회학박사

목회학박사

5001 North Oak Trafficway., Kansas City, MO 64118

Tel.(816)414-3754 Email: ks@mbts.edu

SINCE 1977

캘리포니아 프레스티지 대학교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의 새로운 이름

* 전세계 온라인으로 온 캠퍼스와 실시간 수업가능 *

• 1977년 설립된 이후 지켜온 선교 지향적 교육을 토대로 다양하고 폭넓은 미래지향적 교육을 추구하고자 합니다

• 최첨단 효율적인 온, 오프라인, 블렌디드 교육 플랫폼 제공

• 과정에 따라 영어, 한국어, 중국어 프로그램 (학사, 석사, 박사)

• SEVIS I-20 발행 | 연방정부 학자금 보조 | 미국연방 인가된 학교

• 홈페이지 www.ptsa.edu | 입학문의 562.926.1023 (ext 300)

15605 Carmenti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월드미션대학교

World Mission University

■ ABHE, ATS 정회원

■ 미국 주류 신학교 학점 인정 및 편입학 가능

■ 온캠퍼스와 온라인 프로그램

■ 신학, 상담학, 음악학, 간호학, 글로벌리더십 학위과정

■ 유아교육, 가정사역, 비영리단체사역 수료과정

500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0

Tel:(213)388-1000 Fax:(213)385-2332

www.wmu.edu admissions@wmu.edu



복 음 대 학 교

Evangelical University

• TRACS 정회원 인준

• 특 전 : Sevis I-20 발행 /선교사 장학금 및 각종 장학제도

• 성경학 학사 (B.A. in Biblical Studies)

• 목회학 석사 (Master of Divinity)

• 종교학 석사 (Master of Art in Religion)

• 목회학 박사 (Doctor of Ministry)

2660 W. Woodland Dr. #200, Anaheim, CA 92801

Tel: (714)527-0691(0692) Fax: (714)527-0693

www.evangelia.edu info@evangelia.edu



GATEWAY SEMINARY

Biblical • Missional • Global

게이트웨이신학대학원에서

한영 이중언어과정 학생을 모집합니다.

학위과정 - 목회학석사(M.Div.) & 신학석사 (M.T.S)

상담문의: 909- 687-1649 / KEB@GS.EDU

WWW.GS.EDU Korean-English Bilingual Program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

Grace Mission University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는 대학

신학사(BA), 석사:기독교 교육학(MA CE), 선교학(MA ICS), 목회학(M.Div), 선교학 박사 (D.Miss)과정

연방정부학자금 보조, I-20, 온라인 강의, 한국어 및 영어 트랙, LA Teaching Site 운영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el: (714)625-0088(대표), 515-5885(입학상담)

이메일: admissions@gm.edu www.gm.edu



Azusa Pacific Seminary

Transform the World with Christ

LA:오렌지 캠퍼스 M.Div, M.A, D.Min.

아주사 퍼시픽 신학대학원

입학문의 ☎T.(626)857-2200



글로벌침례신학교

Global Baptist Theological Institution & Seminary

미래의 하나님의 일꾼을 양성하는 요람

목회자와 교사의 사명이 다시 살아나는


Re-Vital Online Program

www.gbtlis.org

학교주소 | 3108 Valley View Ln, Farmers Branch, TX 75234

이메일 | aarahelio@gmail.com

전화 | 508-826-5145



FULLER THEOLOGICAL SEMINARY

플러신학교 선교대학원 한국학부

135 N.Oakland Ave., Pasadena, CA 91182

Tel, 626-584-5574 http://korean.fuller.edu



ITS 신학대학원

International Theological Seminary

"미국연방인가기관 ATS정회원" 2006년 허복

• MATS 선교학 석사 • M.Div 목회학석사

• Th.M 신학석사 • D.Min 목회학박사

100% 온라인 ATS인가 학위 • 온라인 수업 제공

문의(626) 653 9547 EXT.# 112/admin.kor@itsla.edu

대학로에서 매진 행렬을 기록한 연극 <사랑해 엄마>가
LA로 찾아옵니다!

사랑해 엄마

"엄마... 내 혼자서 잘 할수있나?"

"그라몬!
누구 아들인데!"

미국 LA 공연



조혜련 | 조지환 | 정지환 | 유민정 | 엄대 | 이서주 | 김연수

Downey Theatre
8435 Firestone Blvd
Downey, CA 90241

downeytheatre.org

Sunday
10.12 — 7pm

Monday
10.13 — 2pm, 7pm

Ticket
\$50 | \$60

(213) 357-1565
(562) 766-9494 (text)

주최
주관

**LOVING
FORSHIP**



■ 오요한 목사 강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자들을 심판하십니다

이사야 63장 강해
요절: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7절)”

이스라엘의 죄악과 구원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죄악으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과거에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크신 은총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이 다시 은총을 베푸실 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노 중에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1. 스스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1-6절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묘사합니다. 붉은 옷을 입고 화려한 옷을 입은 분이 오십니다. 이사야는 예돔에서 오시고 예돔의 수도인 보스라에서 오시는 그분이 누구인가 묻습니다. 예돔은 이스라엘의 대적입니다.

여호와와는 예돔에서 오는 그분은 바로 ‘나’라고 대답하십니다. 여호와와는 피가 묻은 붉은 옷을 입었습니다.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걸어들어옵니다. 여호와와는 회개치 않는 자를 공의로 심판하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분이십니다. 그분이 친히 걸어들오신다고 하십니다.

이사야는 여호와와의 옷이 왜 붉으며, 포도즙을 밟은 자 같이 붉으냐고 질문합니다. 여호와와는 대답합니다. 그분의 옷이 포도주를 밟은 것 같이 붉은 이유는 하나님이 노하심으로 말미암아 예돔의 무리를 밟으셨기 때문입니다. 분노함으로 이스라엘 대적의 무리를 밟으셨는데, 그들의 선혈이 여호와와의 옷에 튀어

의복을 더럽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자들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장차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이방 민족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원수를 갚으시고 이스라엘을 구속할 때가 왔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하셨으나, 누구도 하나님을 돕는 자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중 중보자가 없습니다. 모세와 같은 중보자가 없습니다. 인간은 다 악합니다. 하나님은 중보자가 없을 정도로 인간이 죄악되고 연약한가, 이상하게 여기십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팔을 의지해, 하나님이 스스로 중보자가 되어 구원 역사를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친히 중보자가 되십니다.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며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영접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다시 오시는 날 심판하십니다. 하늘에 올라가신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재림하십니다. 그날은 공의로 심판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분노가 하나님을 불들였습니다. 하나님은 노함으로 말미암아 만민을 밟으십니다. 하나님이 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취하게 하십니다. 그들의 선혈을 땅에 쏟아지게 하셨습니다.

2. 하나님이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7-10절을 보면 지금은 이스라엘이 이방 민족에 짓밟히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현재 어려운 형편에서 여호와께서 과거에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합니다. 그의 사랑과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풀

푸신 은총을 말합니다.

과거 이스라엘은 은총을 받을 자격이 없었습니다. 전적으로 타락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전적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사야의 말을 받아서, 친히 이스라엘 백성이 받은 은총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죄악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목자 되셔서 그들을 양처럼 돌보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와 같이 자녀 된 이스라엘을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셨습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사람이 고통으로 울부짖을 때, 이스라엘의 고통을 체험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앞의 사자를 보내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옛적 모든 날에 이스라엘을 아기와 같이 팔로 드시며 안으셨습니다. 그들을 독수리 날개로 업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안아 출애굽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으나, 이스라엘은 사랑의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 여호와 하나님을 반역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습니다. 몰락을 섬겼습니다. 이방 나라들을 섬겼습니다. 그들은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반역하고 우상을 섬기고 불순종하면 성령이 근심하십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성령님은 더욱 근심하십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거역한 자의 대적이 되셨습니다. 이

스라엘이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대적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치심으로 징계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바벨론 포로가 되게 하셨습니다.

3. 출애굽의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11-15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바벨론 포로로 있습니다. 백성들은 모세의 때를 그리워하며 출애굽시키신 그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묻습니다.

하나님은 과거 백성과 양떼의 목자를 향해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홍해를 육지같이 만드시고 그들을 향해 바다를 걷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성령으로 함께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성령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광야에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이 지금 어디 계시냐고 탄식합니다.

하나님은 그 영광의 팔로 모세의 오른손을 이끄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사 당신의 이름을 영원히 있게 하려고 그들 앞에서 홍해 바다의 물을 갈라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깊은 바다로 인도하셨습니다. 광야에 다니는 말과 같이 그들이 넘어지지 않고 홍해를 건너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이 지금은 어디 계시냐고 묻습니다. 지금 다시 한 번 예전의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바벨론에서 구원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여호와와의 영이 광야를 지날 때,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이스라엘을 편히 쉬게 하셨습니다. 골짜기를 다 내려가면 푸른 초장이 있습니다. 양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도 목자를 따라갑니다. 오요한 목사.천안 UBF(말씀 사랑교회) <다음호에 계속>

■ 김영한 칼럼

WEA는 어떤 단체이며 신학은 무엇인가(II)

[이전호에 이어서] 오시는 해외지도자들은 한국교회를 긍정적으로 보고 체험하고자 오시는 데 열린 마음으로 대하고, 이들과 성경적이고 올바른 교제를 나누며 세계선교를 향한 사명을 다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필자는 한국교회가 2025 WEA서울총회를 환영하고 대회가 성공하여 서구 기독교가 쇠퇴하고 있는 후기기독교시대에 처해있는 오늘날 세계선교와 복음화에 기여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다. 필자는 한국교회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WEA에 관하여 보다 바른 이해를 갖도록 보다 신학적 배경에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면서 여러차례 WEA에 관하여 글로 알려드리고자 한다.

II. WEA는 세계복음주의자들의 연맹이며 가장 역사가 깊은 세계복음주의자들의 단체다.

WEA는 19세기 당시 시대적으로 창궐한 찰스 다윈의 『종의 기원』(The Origin of

Species, 1859)에서 제시된 진화론, 칼 마르크스의 『자본론. 정치적 경제학 비판』(Das Kapital. Kritik der politischen Ökonomie, 1867)으로 인한 공산주의, 독일로부터 밀려온 역사적 비판학(고등비평, higher criticism) 등 자유주의 도전에 맞서기 위해 1846년 영국 런던에서 전세계 복음주의자들의 연대를 결성하기 위한 조직으로 복음주의 연맹(Evangelical Alliance)으로 시작하였다.

WEA는 1846년의 창립부터 지난 179년 동안 단 한 번도 종교다원주의나 종교혼합을 표방하거나 지지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안다. WEA는 공식 문서에 에큐메니칼(Ecumenical/교회일치운동)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동일한 신앙고백을 전제하는 복음의 연맹체로 충실해 왔다. WEA는 성경의 무오성과 절대 권위를 고백하는 개혁주의 교단들과 신학자들의 모임인 세계개혁주의협의회(World Reformed Fellowship)가 정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단체이며, 합동교단

은 WRF의 회원 교단”이며 예정함동교단도 WEA와 한 우산 아래 있다.

WEA는 세계 개혁주의 신학자들이 주도하고 있다. 미국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Westminster Theological Seminary)은 웨스트민스터신앙고백을 받아들이는 점에서 총신대, 장신대, 고신대, 합신대, 백석대, 대신대와 신앙적인 면에서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참다운 복음주의자들은 누구를 정죄하는 자들이 아니며, 혹시 잘못된 자들에 대하여는 사랑으로 권면하고 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이해해주고 공통점을 찾아 화합하고 진리의 길로 인도해주는 자들이다. 더군다나 본인들이 신사도 아니라고 표명한다면 그것을 받아들이고 의문점이 생기면 문제를 제기하고 바른길 가도록 인도하는 것이 성경적 방법이다.

히브리서는 다음같이 권면하고 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히 12:14). 여기서 “모든 사람”은 불신자들까지도 포함한다. 이 세상에서 우리는 불신자들과도 함께 생활하며, 직장에서는 더욱 그렇다.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 직장에서 지대하기 때문이다. 하물며, 신앙고백적으로 우리와 다른 신자들에 대하여 편견이나 차별을 갖지 말고 저들의 신앙을 존중하며, 성경이 전해주는 사도적 올바른신앙고백을 할 수 있도록 인내와 관용을 갖고 교통해야 한다. 그 원칙은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는 것이다.

이번 한국교회에 오시는 WEA지도자들은 복음주의자들이요, 사도신경(Symbolum Apostolicum, The Apostolic Creed)과 니케아-콘스탄티노블 신경(Symbolum Nicaeno-Constantinopolitanum, The Nicene-Constantinopolitan Creed)을 고백하는 자들이다. 작년 제4회 로잔인전대회처럼 이들을 형제로 받아들이고 환영하고 교제를 나누는 것이 무엇보다 그리스도인 된 도리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라고 생각된다. <계속>.



허리를 든든히 바쳐주는 차량용 등받이

단단히 지지해 주는 등받이 사용으로 편안한 운전을 경험해 보세요.
매일 운전하시는 분들, 장거리 운전하실 경우, 허리가 불편하신 분들이 사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허리를 든든히 바쳐주는 차량용 등받이

장점 1
나무는 좌석에 기대었을 때 신체에 맞게 윤곽이 잡힘

장점 2
커버 소재는 다이빙 슈트로 제작

장점 3
내구성이 뛰어나며 운전자에 맞게 늘어짐

www.j1mart.com
웹사이트에서 바로 주문하세요.
문의 : 213-434-1170

PEMF 와 Tera Hertz 테라헤르츠가 만나다! 테라 P-90
세계 최초의 최첨단
신기술을 이용한 30분의 기적!
무료체험하러 오세요!



자연요법, 대체 의학, 예방 의학을
전문으로 하는 의료 전문가들의 추천

우주인에게 사용되는 PEMF, 생명의 빛 테라헤르츠파로 생성된 올리라이프 테라P-90
PEMF(지구자기장) + THz(빛 파장) + Earthing (땅 에너지) 가 결합된 제품

- 1. PEMF 전자기 펄스를 발생, 발바닥에서 온 몸으로 열에너지 전달 혈액순환촉진에 도움
- 2. 테라헤르츠파가 피부에 침투하여 인체의 미세순환을 활발하게 해주는데 도움
- 3. 땅에 어싱한 것처럼 전자를 유입하여 활성산소를 중화하는데 도움을 줌

PEMF란?

지구자기장으로 NASA에서 우주인의 건강을 위해서 개발된 기술이기도 합니다.
우주에서 장기간 머무는 비행사들은 지구자기장의 영향권 밖에 있기 때문에 뼈와 근육의 손실이 심하게 됩니다. 이러한 우주비행사들의 회복을 위해 사용되어 왔습니다. 10여년 전만해도 지구로 귀환하는 우주비행사들은 90일간 PEMF를 받아야 했습니다. 우주에서 머무는 동안 근육손실과 뼈의 약화 등에서 정상적으로 회복되도록 PEMF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테라P-90의 의미도 최소한 90일간의 PEMF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테라 P-90을 30분 사용시 얻을 수 있는 동일한 성과

- 2시간 운동 성과 (근육활성)
- 부황 20회 (혈액순환)
- 훈육 1시간
- 땀 10회 (체온상승)
- 마사지 30회
- 피부 스킨링 60회 (리프팅)

테라 P90의 효과

- 세포에너지 생성에 도움
- 통증과 염증에 도움
- 피로에 도움
- 혈액순환과 산소공급에 도움
- 면역건강 보조
- 안티 에이징에 도움
- 신진대사에 도움
- 뇌건강과 인지능력 증가에 도움
- 시력향상에 도움
- 독소배출(림프)에 도움
- 우울증/스트레스에 도움
- 폐와 신장기능강화에 도움
- 수면장애에 도움
- 지방연소에 도움

FDA, SGS, OPMS, ISO 세계적으로 특허 및 승인 받은 제품 158개국에서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제품 하나의 디바이스로 온가족이 함께!
테라헤르츠와 PEMF의 시너지, 최첨단 건강 혁신! 두 가지 혁신 기술의 만남으로 완벽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세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의 체험수기

“저는 한의사로서 다양한 치료법을 경험해왔습니다. 테라 P-90을 사용해본 결과, 정말 놀라운 효과를 느꼈습니다. 이 기기는 깊은 조직까지 침투하여 통증을 완화하고, 빠른 회복을 지원합니다. 특히 관절염 환자들에게 통증 완화와 기능 회복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테라 P-90은 비침습적이며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어, 환자들에게 자신 있게 추천할 수 있습니다.” - Y*** 한의사

“정형외과에서 테라 P-90을 도입한 이후, 환자들의 회복 속도가 눈에 띄게 향상되었습니다. 특히 수술 후 회복과 근골격계 질환의 치료에 효과적입니다. 전자기장이 깊은 조직에 작용하여 염증을 줄이고 통증을 완화시켜주며, 치료 효과를 빠르게 증진시킵니다. 실제로 환자들이 치료 후 더 빠르게 일상으로 복귀하는 모습을 보면서, 테라 P-90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 J***** 정형외과 의사

“테라 P-90은 물리치료에 매우 유용한 도구입니다. 근육의 긴장을 완화하고 혈액순환을 촉진하여 빠른 회복을 지원합니다. 제 환자들이 테라 P-90을 사용한 후, 통증이 줄어들고 운동 범위가 확장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치료 세션에 테라 P-90을 포함시키는 것은 환자들의 재활 과정을 크게 개선시키는 방법입니다.” - M** 물리치료사

“피부과에서 테라 P-90을 사용하여 염증성 피부 질환과 상처 치유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전자기장이 피부 깊숙이 작용하여 염증을 완화하고 세포 재생을 촉진시킵니다. 환자들의 피부 상태가 개선되고, 치료 후 회복 속도가 빨라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피부 건강을 위한 혁신적인 치료 도구로 테라 P-90을 추천합니다.” - L** 피부과 의사

grace.olylifeglobal.com 웹사이트 주문 후 2주 후 물건도착
문의 213-434-1170 무료체험 (오시기전 예약필수 월~목 : 오전 11시~오후 2시)
3055 Wilshire Blvd #480 ., LA, CA 90010
* 건강 비즈니스 파트너를 찾고 있습니다. 건강과 비즈니스 기회를 원하시면 지금 연락주십시오.

[크리스찬북뉴스 서평]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다층 · 심층 분석

십자가 고난 축소 · 피상적 이해 현대 경향에 강력히 도전하다



수난당하시는 그리스도

클라스 스킬더 | 손성은 역 | 크리스천르네상스 | 647쪽 | 34,000원

클라스 스킬더의 사순절 삼부작 설교는 “그를 가장 잘 기억할 수 있는 작품(서문 중)” 으로 소개된다

이 설교집이 그리스도의 수난과 죽음을 다루고 있고, 스킬더가 ‘구속사적 설교’ 의 화두를 던진 신학자라는 점을 생각할 때 이러한 평가는 적확할 듯하다

20세기 중요한 신학자 중 한 명인 클라스 스킬더(Klass Schilder, 1890 – 1952)의 깊이 있는 묵상을 담은 이 책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다양한 신학적·철학적 관점에서 탐구하며 독자에게 깊은 울림을 주는 작품입니다.

서론: 십자가의 신비와 현대적 의미

클라스 스킬더의 〈수난당하시는 그리스도〉는 단순히 역사적 사건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넘어, 그 고난의 심오한 신학적 의미와 현대 사회에 던지는 메시지를 깊이 있게 파헤치는 역작입니다. 스킬더는 특유의 통찰력과 폭넓은 지식을 바탕으로 성경 본문을 세밀하게 분석하고, 다양한 철학적·신학적 전통과의 대화를 시도하며 십자가 사건의 다층적 의미를 탐구합니다. 이 책은 고난의 의미를 축소하거나 피상적으로 이해하려는 현대적 경향에 강력한 도전을 제기하며, 십자가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 그리고 인간의 죄와 구원의 문제를 정면으로 마주하도록 이끌어 줍니다.

고난의 필연성과 하나님의 주권

스킬더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연적이거나 피할 수 없는 비극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서 필연적 사건이었음을 강조합니다. 그는 구약성경의 예언과 예수 자신의 말씀을 통해 고난받는 메시아의 이미지가 일관되게 제시되었음을 지적하며, 십자가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 안에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거룩한 희생이었다고 역설합니다.

이러한 관점은 고난을 무의미한 고통으로 치부하거나 인간의 자유 의지만으로 설명하려는 시도를 넘어,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섭리 안에서 고난의 의미를 찾도록 안내합니다.

죄의 심각성과 대속의 은혜

스킬더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 드러나는 인간 죄의 심각성을 간과하지 않습니다. 그는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인간 존재 자체를 파괴하는 근본적 악임을 분명히 밝히며, 이러한 죄 문제 해결은 인간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십자가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극적으로 나타난 사건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무죄한 고난과 죽음을 통해 인류의 죄가 대속되고 하나님과의 화해가 이루어졌음을 선언합니다.

고난의 다양한 측면과 신학적 해석

스킬더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육체적 고통뿐 아니라 정신적 고뇌, 하나님으로부터의 버려짐 등 다양한 측면에서 심층적으로 분석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 배신과 부인, 십자가 위에서의 절규 등 성경 기록을 섬세하게 따라가며, 예수께서 겪으신 내면의 갈등과 고통의 의미를 탐구합니다. 그는 이러한 고난의 다양한 측면들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인간의 죄와 구원이라는 신학적 주제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명확하게 제시하며, 십자가 사건을 단순한 희생 이상의 깊은 의미를 지닌 사건으로 이해하도록 돕습니다.

특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는 예수님의 절규에 대한 스킬더의 해석은,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의 고통을 예수님께서 친히 짚어지셨다는 깊은 의미를 전달하며 독자에게 큰 울림을 줍니다.

부활의 빛으로 조명되는 고난

스킬더는 십자가 고난이 부활이라는 궁극적 승리로 완성됨을 강조합니다.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이 헛되지 않았음을 증명하며, 죄와 죽음의 권세에 대한 하나님의 최종적인 승리를 선언하는 사건입니다. 부활의 빛 아래 십자가의 고난은 단순한 비극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과 희망을 가져다주는 구원의 사건으로 그 의미가 변화됩니다.



2025 부활절 페레이드 중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모습을 표현하는 모습. ©CTS

다. 스킬더는 부활 신앙이 그리스도인 삶의 근본 토대가 돼야 함을 역설하며,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고 강조합니다.

현대 사회에 던지는 메시지

스킬더는 〈수난당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십자가 사건이 과거의 역사적 사건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음을 역설합니다. 그는 고난을 회피하거나 외면하려는 현대 사회의 풍조 속에서 십자가의 의미를 되새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 우리는 진정한 사랑과 희생, 정의와 평화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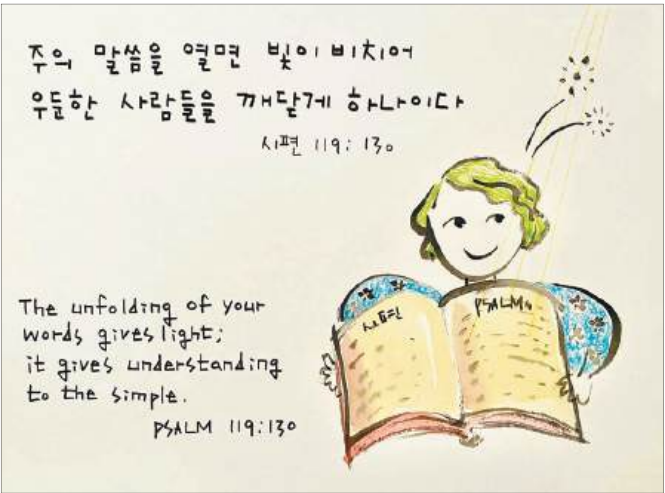
또한 스킬더는 십자가가 개인 구원을 넘어 사회의 불의와 고통에 대한 책임을 촉구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결론 : 십자가의 묵상과 삶의 변화

클라스 스킬더의 〈수난당하시는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다각적 관점에서 깊이 있게 묵상하도록 이끄는 탁월한 신학 서적입니다. 스킬더의 논리적이고 통찰력 있는 분석은 독자들에게 십자가 사건의 신학적 의미를 명확하게 이해하도록 도울 뿐 아니라, 그 의미를 삶 속에서 깊이 경험하고 실천하도록 도전합니다.

송광택 목사
한국교회독서문화연구회 대표

■ 금주의 말씀묵상 | 김영희 권사



龍谷山

모임은 “용수산”
고품격 한정식 코스 요리와
다양한 일품요리 전문 용수산

예약 문의
213.388.3042
950 S.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6

자연을 정직함, 건강을 선물하세요
미국 프리미엄 허니 브랜드 –
CROCKETT HONEY

아리조나 사막의 청정 자연이 빚어낸 세 가지 특별한 꿀이 건강과 품격을 전합니다.
한국 방문 시, 사랑하는 가족과 지인에게 전하는 최고의 선물!

꿀·꽃가루·로열젤리의 황금 조합

자연이 준 면역력, 에너지, 항산화 효과를 그대로 담았습니다!!!

Honey 3lbs
\$25 +tax

① **Desert Blossom Mesquite Honey**
사막의 야생화와 메스키트 꽃에서 채밀된 부드럽고 향기로운 맛! 풍부한 항산화 성분과 미네랄이 가득한 천연 꿀

Bee Pollen
\$45 +tax

② **Crockett Honey (Original)**
가장 순수한 꿀의 기본! 건강한 단맛과 자연 그대로의 영양을 담은 전통의 맛! 차, 토스트, 요리에도 다양하게 활용 가능

Royal Jelly
\$25 +tax

③ **Crockett Honey with Royal Jelly**
꿀 속의 황제, 로열젤리를 더한 프리미엄 건강식품! 면역력 강화와 피로 회복에 탁월한 영양 강화 꿀! 특별한 분을 위한 귀한 선물로 안성맞춤

(Pick up Only) 전화 예약주문 **213-434-1170** prozusa1@gmail.com Pick up 장소: 3055 Wilshire Blvd. #480 LA, CA 90010

[서성록, 한 점의 그림] 실물로 놓은 초석

일제 강점기에도 계속된 ‘기독교 미술’ 발전

성공회서울주교좌 예수 모자이크
상단 그리스도상, 하단엔 성인상
명동성당 제대 위 14성인 종도상
1920년대 한국 기독교 문화 상징

‘교회 미술’은 한때 기독교 예술을 주도했던 중추적 부분이었다. 이 속에는 기독교 신앙 및 서사와 관련된 주제를 표현한 스테인드글라스, 모자이크, 벽화, 팀파논 장식과 조각 등 여러 미술 장르가 포함된다.

우리나라에서는 일제강점기 성공회와 가톨릭 교회에서 상당한 규모의 교회 미술이 제작됐는데, 대한성공회 서울주교좌 성당의 ‘예수 모자이크’와 명동성당의 ‘14 종도상(宗徒像)’이 그러하다. 먼저 대한성공회 서울주교좌 성당의 모자이크 작품부터 살펴 보자. 대한성공회의 트롤로프 주교(Mark Napier Trollope, 1862-1930)는 서울 중구 정동에 로마네스크 양식의 교회 건립을 추진했다.

설계를 맡은 아더 디슨(Arthur Dixon)은 러스킨과 모리스의 영향을 받은 영국 미술공예 운동(Art and Craft Movement)에 참여했던 건축가였으며, 조지 잭(George W. Henry Jack, 1855-1931)에게 모자이크 설계를 맡겼다. 조각가의 아들로 태어난 그는 ‘예술과 공예 건축의 아버지’로 불리는 필립 웹의 사무실에 들어가 미술을 배웠고, 이후 모자이크

크, 가구 디자인, 스테인드글라스를 포함한 목각 및 기타 공예기술을 개발했으며, 후에는 로열 칼리지 오브 아트에서 미술을 가르쳤다. 조지 잭은 전에 웨스트민스터 대성당 내 성 앤드루 예배당 모자이크를 설계한 적이 있어, 대한성공회 성당의 모자이크 제작에 선정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는 성 앤드류 예배당에서 손발을 맞춘 적이 있던 미술 공예가 조시(Josey)의 도움을 받아 작품제작을 진행했다.

서울 대성당 모자이크는 크게 상단과 하단으로 구분되는데 상단에는 그리스도상이, 하단에는 성인상이 형상화돼 있다. 상단의 그리스도상은 1927년에, 하단의 성인상은 1938년에 각각 완성됐다.

상단의 그리스도상을 보면 왼손에 라틴어로 ‘Ego Sum Lux Mundi(나는 세상의 빛이다)’고 적힌 책을 펼쳐두고 있는데, 오른손 두 손가락을 모은 것은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는 뜻을 지닌다. 배경에 쓰인 크리스토크렘 JC/ XC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어 약자로 표시한 것이다. 그러나 조지 잭의 원래 설계 안에는 가장 오래된 기독교의 상징인 카이로(Chi-Rho) ☩ (그리스어 그리스도(χριστός)의 앞 두 글자에서 유래)가 화면 좌측에 있고 알파와 오메가가 화면 우측에 있었으나 완성작에서는 JC/ XC로 변경됐다.

아무래도 우리의 눈길을 모으는 부분은 반구형 돔에 설치된 예수 그리스도상이다. 흔히 책을 들고 있는 예수상을 ‘판토크라토르(Pantokrator)’라고 부르는데, ‘전능하신 주 그리스도’라는 뜻이다.

‘판토크라토르’ 중에서 오래된 작품은 6-7세기 제작된 캐서린 수도원에서 보존되어 있는 작품으로 지금과 같은 상반신으로 돼 있다. ‘판토크라토르’ 양식은 비교적 단순한 포즈로 돼 있는데, 오른손은 위로 들어올리고 왼손은 펴거나 접힌 성경을 잡고 있는 식이다. 조지 잭의 작품처럼 복음서를 펼치는 도상을 ‘선생님 그리스도’라고 부른다. 복음서 안쪽에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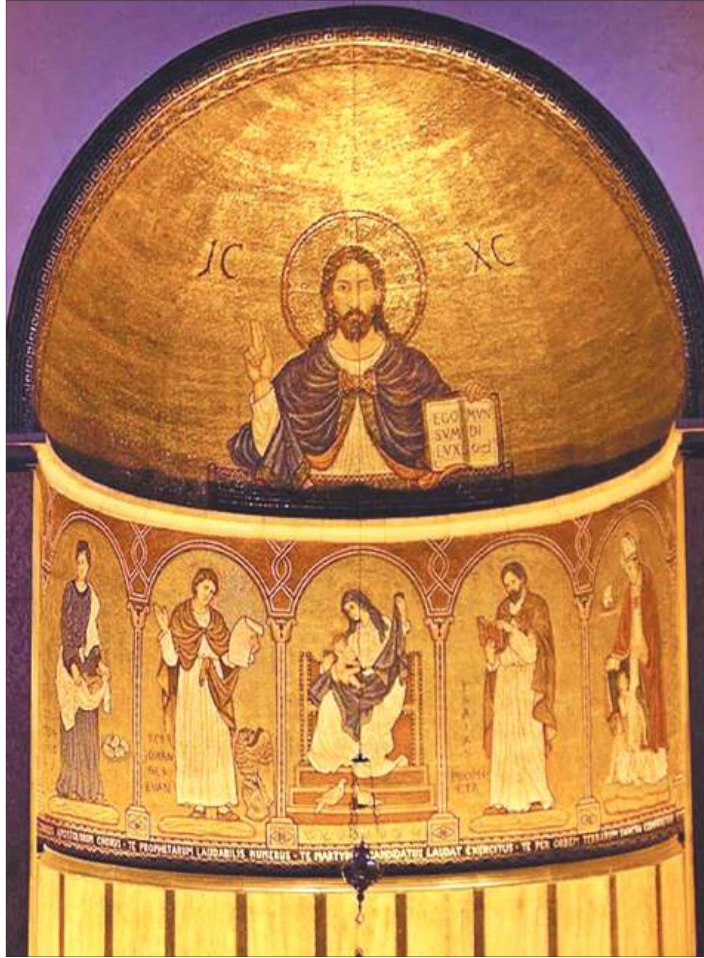
이다’, ‘수고하고 잠진 자들이 다 내게로 오라’, ‘나는 알파이며 오메가이다’, ‘주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지금 계시고 전에 계셨고 앞으로 오실 전능자’ 등 여러 내용으로 되어 있다.

모자이크 하단 벽면에는 5개의 아치 공간에 인물상이 등장한다. 좌로부터 최초의 순교자인 스테반, 복음서를 쓴 사도 요한, 아기 예수를 안고 있는 마리아, 선지자 이사야, 그리고 아이들에 둘러싸인 성 니콜라스(서울 대성당 수호성인)를 각각 볼 수 있다. 그림 밑에 기록된 라틴어 찬송 ‘테 데움(Te Deum)’에는 “영화를 입은 모든 사도들이 주를 찬송하며 주를 위해 증거하고 순교당한 자들 모두 주를 찬송하며, 온 천사의 모든 교회가 주를 찬송하다(김정신, 성공회 서울 대성당의 건축양식과 그리스도교 빛의 미학, 『미학예술학연구』, 2004, 8쪽)”고 기록돼 있다. 모자이크 작품을 통해 조지 잭과 조시의 교회미술의 오랜 도상 전통을 지닌 ‘판토크라토르’ 도상을 직접 감상할 수 있다.

명동성당 제대 위에는 『14 종도상』이 소장돼 있다. 가톨릭 신자 장발(1901-2001)이 드브레 유 주교(1877-1926)의 의뢰로 제작한 것이다. 일찍이 장발은 동경미술학교에서 서양화를 전공하고 도미, 컬럼비아 대학에서 미학, 미술사학을 공부하였다. 귀국 후에는 가톨릭 미술을 국내에 확산, 전파하는데 주력했다. 이때 그린 그림으로 ‘감대건 신부상’, ‘김포콜바와 아네스 자매’ 등이 있다. 미술사학자 이구열의 표현대로 그는 ‘본격적 성화 제작을 개척한 화가’였다.

『14 종도상』은 그가 1925년 바티칸에서 조선 순교자 시복식에 참여해 돌아와 명동성당 제단 뒷면 설치용으로 약 2년에 걸쳐 제작한 것이다. 모두 14점으로 구성되어 있고 한 점 한 점이 아치형이며 라틴어와 한글로 주인공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등장인물은 마티아, 시몬, 바돌로메, 소 야고보, 요한, 안드레, 베드로, 바울, 대 야고보, 빌립, 마태, 다대오, 바나바 등이 주요 인물로 그려져 있다.

동료 미술가 이순석(1905-1986)에 의하면 장발은 이 공간을 어떻게 장식할지 고민을 하다가, 경주 토함산의 석굴암을 방문했다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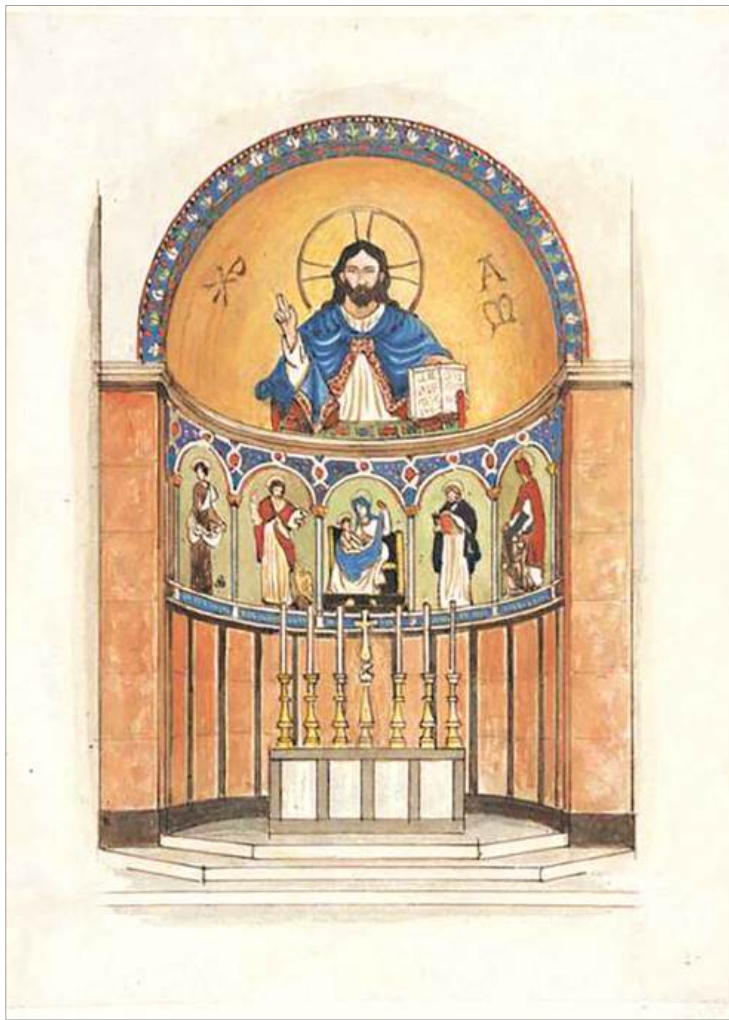
대한성공회 서울주교좌성당 모자이크 제단화.

한다. 그곳에서 석굴암 내벽의 원형 구조와 석가모니 본존불을 중심으로 그것을 둘러싸는 10대 제자상 입상 부조배열을 참조하여 제단화를 계획했다고 한다. 제단화의 등장인물이 그리스도를 에워싼 듯한 구도로 돼 있는 것은 이 때문이다.

이 작품의 등장인물들은 대체로 정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는데, 이는 그가 교회 미술을 공부할 때 참고하였던 보이론(Beuron) 화풍의 영향에 기인한 것이다. 독일 베데닉트회 소속 신부 화가들이 세운 보이론 미술은 ‘침묵하고 고요하며 신비롭게 보이는 색채’를 특징으로 하는데, 『14 종도상』 역시 그런 방침에 따라 등장인물의 동작을 줄여 경건함을 더하고자 했다. 장발 역시 “부동의 세를 취함으로 일층 엄숙한 느낌을 더한다(장발, 보이론 예술, 『카톨릭 청년』 2권 2호, 1934, 52-53쪽)”면서 경건성을 중시하는 태도를 취했다. 1920년대만 해도 우리나라에 유입된 기독교 미술은 출판물에 실린 삽화나 교재용 인쇄물이 주종을 이루던 시기이다. 이때 조지 잭의 모자이크나 장발의 『14 종도상』 제단화는 출판물에 머물렀던 기독교 미술을 실물로 제작해 교회 미술의 초석을 놓게 되었다.

조지 잭의 그리스도상과 장발의 〈14 종도상〉과 같은 교회 미술은 종교개혁 이후 개신교가 추구하던 시각예술의 성격과는 거리가 있지만, 1920년대 한국 기독교 문화의 한 장면으로 기록될 만하다.

서성록 명예교수(안동대 미술학과)



조지 잭, 교회 장식을 위한 모자이크 드로잉, 종이에 혼합재료, 20세기 초, Victoria & Albert 미술관 소장

집안의 대를 이어 나가는 마음으로
고객에게 최선을 다합니다!

할머니 손 맛 그대로!
48시간동안 우려낸 진한 국물 맛!
최고급 고기만을 엄선!

송영 투크 설렁탕

단체주문 환영

T.(213)277-1339

2717 W Olympic Blvd. #108 LA, CA 90006(구) 베버리순두부 자리

2025학년도 가을학기

신입생 | 편입생모집

실시간 인터넷 소통 화상강의(Zoom)를 통하여,
전세계 어느곳에서나 함께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9월 22일 ~ 12월 5일까지

본교 지원시 특전

- 1) RPCA개혁 장로회 한미연합총회에서 목사안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2) 목회자나 선교사님들, 그의 자녀들에게 장학금 혜택이 있습니다.
- 3) 본교는 미국 신학교 협의회에 가입된 회원학교입니다.
서로 학점 교환이 가능합니다.

신학학사과정(B.Th)

목회학석사과정(M.Div)

목회학박사

교육학박사

신학박사

철학박사과정 상담가능(NYTS)

상담전화 | 213-272-6031



CHRISTIAN THEOLOGICAL UNIVERSITY IN AMERICA

미주크리스천신학대학교(원)

439 S. Western Ave. #100 Los Angeles, CA 90020

“복음 통일 연합 사역 플랫폼, 2026 독일로 이어진다”

2025 시애틀 선교 컨퍼런스가 지난 8월 22일부터 23일까지 워싱턴 주 웨더렐웨이 제일장으로교회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광복 80주년을 기념해 열린 이번 대회는 '역사적 교회, 미셔널 라이프, 부흥의 복음통일로'를 주제로, 북한 복음화와 복음통일을 향한 사역 전략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교회 역사에 대한 강의부터 현실적인 신앙과 선교적 삶, 재정 관리, 복음 통일의 비전까지 공유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더불어 일제 강점기 신사참배의 역사와 분단의 원인에 대해 성찰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복음 통일을 위해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도 가졌다.

2026년 컨퍼런스는 4월 6일(월)부터 17일(금)까지 독일 Zionsberg(호스트 사)브링업 인터네셔널에서 교회개혁과 복음통일지도자 인텐시브 프로그램' 형식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종교개혁과 분단 극복의 상징적 장소인 독일에서 교회개혁과 복음통일을 연결하는 교육과 체험의 장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또 종교개혁 발상지와 중세 교회를 탐방하며 교회의 역사적 회복과 복음통일 비전을 놓고 함께 기도하게 된다.

박상원 목사로부터 올해 시애틀 복음통일 컨퍼런스의 성과와 내년 도 컨퍼런스 준비 과정에 대해 들어왔다.

그는 “LA, 하와이, 휴스턴, 달라스, 방콕 등지에서 이어져온 연합 컨퍼런스가 올해 컨퍼런스에서 복음 통일을 위한 연합 ‘빅 텐트’(The Station 4U, 가칭)를 형성하는 결실을 맺을 수 있었다”며 “복음 통일을 위한 선교 연합의 무브먼트가 내년도 독일에서 열리는 대회로 이어져 복음 통일의 비전과 기도 제목을 더욱 구체화하는 기회로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하는 일문 일답.

시애틀에서 개최된 2025 선교 컨퍼런스의 결실과 성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복음통일 선교컨퍼런스가 2018년
도부터 LA 사랑의 빛 선교교회에서
시작해, 하와이, 휴스턴, 달라스, 방콕,
올해 시애틀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동
안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북한



기드온동족선교회 박상원 목사

선교와 복음 통일을 위한 비전을 공유했는데요. 모두 각자의 단체 이름을 뒤로 하고, 그리스도의 연합체로 순수하게 참여해왔습니다.

북한 선교와 북측 통일을 위한 다양한 비전과 의견이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는 ‘연합’과 ‘하나 됨’을 통한 회복을 이루려고 함께 노력해 왔습니다. 이런 결실로 올해 대회에서는 후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연합 모임이 구성되었고, 북측통일을 위한 큰 텐트가 마련된 것이 가장 고무적인 성과였습니다.

“The Station 4U”(가칭)라는 빅테트
는 복음 통일을 위한 플랫폼이나 스테이
이션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함께 모여
출발할 수 있는 스테이션 역할을 하
게 됩니다. 올해 시애틀 컨퍼런스에서
는 다양한 순서가 많았지만, 결국 우
리 마음을 모아 참석자들이 실제로 연
합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결실이 있었습니다.”

올해 시애틀 컨퍼런스에 대한 참석자들의 평가는 어떨까요?

“컨퍼런스 평가를 위한 참석자들의 의견을 수집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참석자들이 답변된 내용들을 보면 ‘통일에 대해 구체적으로 생각하게 됐고, 한 개인보다 단체가 연합할 때 힘을 낼 수 있다’는 점을 배울 수 있었다고 합니다. 또 ‘북측통일의 이유와 시급함을 알게 됐다’는 의견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참석자들이 공통적으로 북측 통일의 비전을 공유하고 특별히 ‘연합과 실천’의 필요성을 공감한 부분도 큰 유익이 있었습니다.

북한 복음화와 복음통일을 위해 한
국교회와 미국 디아스포라 교회, 탈
북 사역자들이 어떻게 협력할 수 있
을까요?

“복음 통일은 광범위한 영역에서 맞물려 있습니다. 북한 주민에 대한 이해, 교회적인 관심, 경제와 역사, 이념 등 모든 부분을 정리해야 합니다. 저희가 구호만 외쳐서는 이뤄질 수 없지요. 모든 분야를 제대로 된 정론으로 정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세대가 복음 통일의 필요성을 깨닫고 공감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복음 통일의 비전이 나눠져야 합니다.

요즘 교회 리더십들과 일반 성도
 들도 복음 통일
 에 대해 관심이
 많고 정보도 가
 지고 계신데요.
 북한 현지 사정
 을 아는 전문가
 가 아니기 때문
 에, 각 분야의 전
 문가들 연합해
 복음 통일을 위
 한 접근법과 구
 체적인 방법에
 대해 제공해 드
 려야 합니다. 한
 국 교회와 미국
 과 전세계 디아
 스포라 교회, 탈북 사역자, 북한 선
 교 전문가들이 함께 복음 통일의 비
 전을 나누며 예배와 경제, 문화 등 접
 근법과 사례를 제시하면서 복음 통
 일을 향한 제안과 비전을 나누며 실
 제 협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
 합니다.”

복음 통일을 위해 교회가 시급히 회복해야 할 부분은 무엇인가요?

“한국교회는 160년 전 토마스 선교
 사님 등 초기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
 하는 동시에 교육과 의료 봉사를 실
 시하며 개화가 시작됐고 근대화가
 이뤄졌습니다. 너무나 낙후됐던 우리

선조들의 삶이 초창기 선교사님들을 통해 크게 개선됐습니다. 그리고 복음이 활발하게 전파되는 부흥기도 있었었습니다.

그러나 일제 강점기 신사참배에서 신앙인들이 배교를 택하며 큰 위기를 맞았습니다. 유대 백성들이 바일과 이방신에게 절하며 바벨론 포로가 되고 나라를 빼앗기는 역사가 있었는데요. 이와 마찬가지로 북한의 평양도 대부흥을 경험했지만 이제는 인간 숭배와 우상숭배가 만연한 땅이 됐습니다. 북을 통일하는 단순 정치·경제적 통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순수한 선교 역사와 신앙적 회복을 의미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 한국교회가 아직까지 온전하고 합당한 회개가 이뤄지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이를 정확히 분별하고, 다시 회개와 복음을 통해 원상회복해야 합니다.

한반도 복음화가 처음 이뤄진 북한 땅에서 지금은 인간 앞에, 우상 앞에 절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것을 인정하면서 회복을 말할 수는 없습니다. 우상과 사진 앞에서 절하는 북한의 주민들, 사진을 불태웠다가는 노동교화소로 끌려가는 현실들, 한국 교회 성도들은 이것을 정확하게 분별하고 다녔어야 합니다. 마치 우리가 배교했던



“역사적 교회, 미셔널 라이프, 부흥의 복음통일로” 라는 주제로 웨더럴웨이 제일장로교회에서 진행
된 2025 시애틀 선교 컨퍼런스 기념촬영

것을 회개하는 것부터가 복음 통일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주민들은 김일성 일가가 ‘일제로부터 해방을 가져왔다’는 거짓 정보에 역사관이 굳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북한 주민들의 역사 인식을 바로 잡아야 하고요.”

2018년부터 북을 통일을 위한 연합
사역을 진행하셨는데요. 그동안 배
운점 있다면 무엇인가요?

“돌아가신 손인식 목사님께서
2016년에 저를 독일로 초청해 주셨
었습니다. 성니콜라이 교회 촛불기도
회에 참석하게 됐고요. 고 손인식 목

사님께서는 독일의 통일이 가능했던 것이 '기도의 힘'이었다는 것을 제게 깨우쳐주셨었습니다.

그리고 북한 선교와 통일을 향한 방법론에서 보수적 시각과 진보적 시각이 존재하는데, 어느 한쪽으로 치우침 없는 연합과 균형적 선교가 필요함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깨어졌던 선교의 역사를 다시 붙잡으면서도 계속적으로 지향성과 북한 주민들을 직접 도우며, 또 국제기구나 또 단체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북한의 현실을 홍보하고 알려야 합니다.”

내년에는 독일에서 컨퍼런스가 개최됩니다. 독일은 종교개혁의 본산이고 우리보다 앞서 통일을 이뤘습니다. 컨퍼런스가 가지는 의미가 클 것 같은데요.

“저는 종교개혁이라는 말보다 교회개혁이라고 하는 말을 더 선호하고 싶은데요. 종교개혁 하면 기독교인지 이슬람 혹은 불교인지 조금 막연하잖아요. 그래서 확실하게 ‘교회개혁’이었다는 사실을 알리고 싶습니다.

그동안 교회 개혁지를 탐방하고
교회개혁사를 살펴보니 결국 독일의
교회가 계속 기도하고 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복음 통일

이 제2의 교회개혁이 되어야 되겠다’
는 비전을 갖게 됐습니다.

독일은 분단과 통일을 경험한 나라로, 한국 교회가 복음통일을 준비하는 데 반드시 배워야 할 교훈을 가진 땅입니다. 독일의 통일 과정에서 성공한 부분과 실패한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반면 교사로 삼아서 교회안에 있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전문가들이 복음 통일의 빛과 소금을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는 역할을 독일 컨퍼런스가 감당하고자 합니다. 이것이 내년에 독일에서 모이는 이유입니다.”

이윤준 기자



CUCKOO

www.Cuckooorental.com

213-663-9899

■ 믿을 수 있는 품질, 확실한 서비스!

■ 당신의 생활을 더 건강하게 **쿠쿠**와 함께하는 스마트 라이프!

부쿠밥솔, 정수기, 공기청정기 렌탈, 구매, A/S 상담, 환영

750 S. Oxford Ave, Los Angeles, CA 90005 (시온마켓 1층)



문선영의 머니토크

재정상담 누구에게 맡기시나요?

**실력/신뢰/경험을 바탕으로
만족도 1위 재정전문가 문선영이 있습니다.**

생생보험/온라인/리빙비즈니스/401K/연금/학자금/글로벌/가족

질문 안녕하세요 문선영님, 저는 문선영의 머니토크 유튜브를 구독한 지 일년 정도 됐습니다. 계속 좋은 내용을 혼자서만 보지만 하다가 이번에는 용기를 내서 사연을 보내 봅니다. 제가 남편을 여리고 혼자서 애 둘을 키우고 살면서 매일을 로지스틱 컴퍼니에서 하루에 10시간 썩을 일하며 성실히 살아 왔습니다. 덕분에 애들 모두 이제는 결혼을 해서 성실히 걱정 없이 살고 있고, 저도 하나님의 은혜로 아직까지 몸 아픈데 한 곳 없고, 이제는 은퇴를 6개월 앞둔 나이가 되서 평생 하고 싶었던 전도사역을 공부하며 조금씩 뛰고 있습니다. 나이는 해 로 64세입니다. 애들 키우면서 한번도 제대로 된 저축도 못했고, 먹고 사느라 정신이 없었는데 그나마 은퇴를 한다고 하나가 회사에 부었던 401k가 조금 있다는 것을 작년에 알게 됐습니다. 솔직히 네 월급에서 얼마큼 넣었는지도 몰랐고 그것 때문에 세금을 해택 받아 왔는지도 몰랐습니다. 지금은 그 401k에 돈이 22만 불이 쌓여 있다고 하는 겁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저에게는 생각지 못한 큰 돈이고 이 돈을 이제 어떻게 하냐는 생각에 기ده도 부풀지만 걱정도 됩니다. 전도사역을 계획하고 싶은 저에게 이 22만불을 재정상담을 받고 싶지만 한편으로는 22만불을 가지고 은퇴한다는 것은 안 이후로 자꾸 이 돈생각과 걱정을 하게 되더라구요. 주님을 모시는 사람으로써 이제부터 돈을 내가 주인으로 섬기는 것은 아닌가 하는 죄책감도 들고 남편에게 말하기도 못하겠고 제 소신으로 생활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데 이 22만불은 큰 돈인데 이 갈등되는 두 가지 마음에 문선영씨에게 연락드려 봅니다.

생년에서 고민하시는 부분이 이 말씀에 근거해서 갈등하고 혹은 나 내가 하나하나 떨리하게 떠나가 배신하게 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마음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아이고 선생님, 그 마음 귀하게 여기고 재정전문가로서 그리고 크리스찬으로서 제가 오늘은 짧게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님은 우리에게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두 주인은 하나님과 재물이요, 주인을 섬긴다는 의미는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헌신하며 복종, 충성한다”는 의미입니다. 선생님이 스스로에게 질문 해 보십시오. 401k에 22만불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갑자기 그 돈에 헌신하며 복종하며 충성하는 것일까요? 그 401k가 생긴 이후로 주님의 뜻을 생각지 않고 주님과의 대화를 하지 않게 되었나요? 분명 아닐 겁니다. 다만 인간에 우월한 생물은 다 자녀들과 의논을 하는 것처럼, 직장 내 동료들 사이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민하고 동료들과 함께 의논하고 풀어나가는 것처럼, 지금 401k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떤 플랜을 해야 할까를 고민하는 게 아닐까요?

저는 돈을 섬기는 것, 돈의 노예가 되는 것, 무엇보다 돈이 최고라는 관점에서 손님을 도운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주님이 허락해 주신 재물을 어떻게 관리하느냐는 청지기 관점에서 손님들의 재정을 도와드리고, 재정교육을 시켜 드립니다. 이 청지기 비유는 누가 복음 16장에 불의한 청지기가 어떻게 재물을 활용하여 친구를 얻게 되는지, 오히려 어떻게 하늘의 보물을 바꾸는지, 저는 여기에 떠나가 하나님의 세상을 어떻게 알리게 되는지 역할을 칭찬하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고린도 전서 4장 2절에도 청지기를 “주인이 맡겨준 것을 충성스럽게 관리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나의 주인이 하나님에 맡겨준 이 세상의 재산을 이제 충성스럽게 관리하고, 메트로 전서 4장 10절에서 11절 말씀처럼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10절). “만일 누가 말하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고 하셨습니다. 즉 우리 모두는 각자 받은 것이 물질적인 은사이면 하나

미국에서 여러분의 재정상담과 플랜을 돕고 있는 문선영 머니토크의 재정전문가 문선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

문선영의 머니토크

여러분이 돈에 대해 궁금해 하는 이 세상의 모든 돈에 미국에 살면서 내 돈 쓰고요, 관리하고, 불리고, 보존하는데 필요한 재정교육과 자금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돈에 대한 지식을 지혜롭게 유익하게 알려드립니다. 여러분의 재정교육, 돈 이야기 재정교육에 영감을 주는 재정 #선생님 질세 케이스 적용까지 가능합니다.

라디오스타를 문선영의 머니토크

미국 최초/미국 최대, 미국 유일의 재정방송 라디오스타를 머니토크(라디오스타 AM1050) 라디오 방송 주주/사주/진행인으로서

Finance & Marketing WISECALIFORNIA 626-827-9599

3035 Wilshire Blvd., 14th, ADE, Los Angeles, CA 90010
8 Cornerstone Dr., Suite 722, La Habra, CA 90633

문선영 MONEY TALK

님께서 주신 것임으로 우리 자신만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 사용하면 되는 것이지요.

선생님이 몸이 아프시던 당면히 의사를 찾아갈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님은 사람을 치유하는 의사였습니까. 선생님께 재정 문제가 생기면 당연히 저 같은 재정전문가를 찾아가

실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사람들의 먹이는 오병이여의 “기적”이 아닌 “실천”을 하셨습니다. 선생님의 401k도 역시 저 같은 재정전문가를 만나서 충성스러운 청지기로 어떻게 관리하고 불려서 어떻게 사용, 실천할 지, 주님을 어떻게 할 지 무척 기대가 됩니다. 문선영의 머니토크였습니다.

 Finance & Marketing
WISECALIFORNIA **626-827-9599** 3435 Wilshire Blvd., 14FL A04, Los Angeles, CA 90010
6 Centerpointe Dr., Suite 737, La Palma, CA 90623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구세주시라

IXΘΥΣ

러빙워십 찬양 콘서트 익투스 — IXΘΥΣ

- Speakers

강준민 목사, 구봉주 목사
박은성 목사, Joseph Lee 목사
- Loving Worship
Praise Team
- Tickets

\$10 | 213.357.1565
- Guests

조혜련, 브라이언 킴



Saturday [토]
10.04.2025 — 6:30PM

새생명비전교회
4226 Verdant Street
Los Angeles, CA

Sunday [주일]
10.05.2025 — 7:30PM

감사한인교회
6959 Knott Avenue
Buena Park, CA

Friday [금]
10.10.2025 — 7:30PM

나성영락교회
1721 North Broadway
Los Angeles, CA